

“세금 줄여줄테니 투자해달라” 정부, 기업에 SOS

2019 세법개정안

내년 1년간 한시적 세제 혜택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법인세 경감 5년간 5500억 기대
근로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
고소득층 稅부담 3800억 늘어

정부가 극심한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커진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320억 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 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2년 늘린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대기업은 생산성 향상·에너지 절약 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해준다. 이를 통해 전체 법인세 경감 규모는 5년간 누적으로 5463억 원에 달한다.

또 내년부터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경제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우선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2000만 원으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연간 총 급여가 3억6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2만1000명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내년 이후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2012년 이후(퇴직소득 한도 도입 기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는 축소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연간 640억 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로 36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춘다.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은 연간 49억 원, 5년간 250억 원가량 늘어난다.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3773억 원 늘어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인 구미코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장세용 구미시장, 문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장. 연합뉴스

LG화학, '구미형 일자리'에 5000억 투자

배터리 핵심소재 '양극재' 생산공장 건설...1000명 일자리 창출

LG화학이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000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신설한다.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양극재의 안정적 수급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은 25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중 하나인 '구미형 일자리'의 첫 사업 모델로, 기업이 100% 투자하는 '투자촉진형' 방식이다.

LG화학은 구미시 국가산업 5단지 내 6만여㎡ 부지에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이번 투자



'상생형 구미 일자리' LG화학 양극재 공장 개요

투자 기간	2020~2024년
투자 규모	약 5000억 원(LG화학 100% 투자)
위치	구미 국가산업 5단지(6만여㎡)
생산 규모	연간 6만 톤
고용창출 효과	직간접 포함 1000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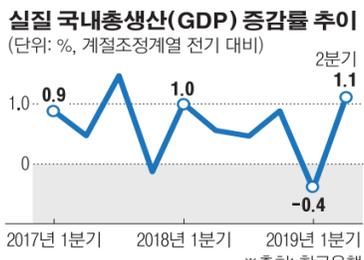
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다. 신설 공장은 내년 중 착공해 투자가 완료되는 2024년 이후에는 연간 약 6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38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기준 약 50만 대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는 지역 주도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어 준 경북도, 구미시, LG화학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다양한 상생형 일자리 발굴,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eugene@

재정 풀어 끌어올린 1.1% '깜짝 성장'

韓銀 '2분기 실질 GDP' 발표

정부기여도 1.3%p...41분기세 최대 투자·수출부진 민간기여도 -0.2%p



-0.1%포인트로 3분기째 뒷걸음질쳤다. 반면 내수 기여도는 1.2%포인트로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과 투자,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 중앙정부의 높은 재정집행률과 지방교부금 집행 등으로 정부 기여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민간 소비부진은 기여도가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신호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3분기와 4분기 각각 전기 대비 0.8%에서 0.9% 성장하면 기술적으로 올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도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부문이 개선되면서 회복 탄력을 받을 것인가가 향후 경기의 주요 관점”이라고 진단했다.▶4면에 계속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반도체 충격 현실화...삼성·SK하이닉스 감산 돌입

하이닉스, 4분기부터 D램 생산 줄이고 CIS 사업 강화
삼성전자도 라인 최적화·설비 재배치 등 생산량 조정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산에 돌입한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등의 악재 탓에 애초 기대했던 하반기 '바닥 탈출'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면서 생산과 설비투자 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25일 SK하이닉스는 올 하반기에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산과 투자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감산을 공식화한 것이다.

D램은 생산능력을 올 4분기부터 줄일 계획이다. CIS(CMOS 이미지 센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경기 이전 M10 공장의 D램 생산 라인 일

부를 CIS용으로 전환한다. 내년까지 D램 생산능력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낸드플래시 웨이퍼 투입량도 15% 이상 줄인다. 정주 M15 공장의 추가 클린룸 확보,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이전 M16 공장 장비 반입 시기도 수요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내년 투자금액은 올해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D램 감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4월 말 1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 D램 생산량 조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계절적 비수기와 지난해 하반기 증설 영

향으로 전 분기보다 메모리 재고가 늘었다”며 “시장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할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라인 최적화, 설비 재배치를 진행하고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 1기 공장 2층 잔여 캐파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일각에서 삼성전자가 평택 2기 신규 공장 설비투자를 내년 1분기로 연기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에 나섰다 건 그만큼 업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라며 “다만 감산을 통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 메모리 업황이 숨통을 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연리 17.9%... 대부업 대출 '대안상품' 나온다

금융위, 700만 원 한도로 '햇살론 17' 9월 출시
용처 무관... 연체 없이 상환 시 금리 2.5%p 인하

연이율 20% 이상 부담하는 대부업 대출자를 위한 햇살론이 오는 9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상품 이용자에게 자금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한도 700만 원을 연이율 17.9%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25일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햇살론세븐틴)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이율 20% 이상을 부담하는 대부업 대출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안 자금을 공급한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급 이하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다. 대출심사는 총부채상환비율(DSR) 심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체 이력과 2금융권 부채 보유 현황은 심사에서 최대한 배제한다. 대출은 은행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며

기본 상품과 달리 '연이율 17.9%·한도 700만 원' 동일 조건으로 이뤄진다. 자금용도 역시 대체상환자금과 긴급자금, 일반 생활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상환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서민금융지원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양한 특례 지원도 시행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무등록 사업자 등 서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대출자는 대면 상담을 통해 같은 금리에 최대 14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체 없이 성실 상환이 이뤄지면 3년 상환 기준 연 2.5%포인트(P) (5년 상환, 연 1%p)씩 금리를 인하해준다. 만기 이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 이용횟수 제한을 최소화해 이미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횡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최종구(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있다. 대출 중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기존 대출액을 제외한 70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반복·추가 대출에는 1%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운영 규모는 올해 2000억 원과 내년 5000억 원 등 7000억

원을 공급한다. 시범운영 기간인 2023년까지는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마련은 국민행복기금 3500억 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후 서울 프레스

센터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간담회를 열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 금융은 복지와 금융의 경계 선상에 있다"며 "이번 상품의 17%대 금리가 과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금리가 낮을수록 심사요건은 올라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이용기회가 제약됐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번 상품은 '정책금융은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정책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해 주고, 이번 상품 이용자가 신용도를 높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용 사다리를 놓는 데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햇살론17은 9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 출시할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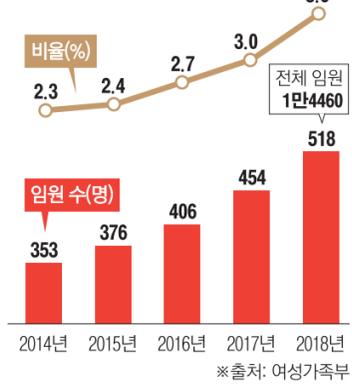
500대 기업 女임원 3.6%... 여전히 단단한 유리천장

작년 518명... 매년 소폭 증가
정보통신업 8.4% 가장 많아

지난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3.6%로 조사됐다. 지난 6년간 여성 임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5%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이다. 분석 결과 지난해 500대 기업의 전체 임원(1만4460명) 중 여성 임원 수는

기업 여성임원수 · 비율 추이

*2018년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518명으로 3.6%였다. 2017년 여성 임원 비율이 3%였던 것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여성 임원 수는 2014

년 2.3%(353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은 190곳(38%)이었다. 2014년에는 152곳(30.4%)에만 여성 임원이 있었지만 5년 새 38곳이 늘어났다. 이 중 여성 임원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60곳으로 가장 많았고, 20% 이상 14곳, 30% 이상인 경우는 5곳이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8.4%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5.1%), 금융보험업(3.4%), 제조업(3.2%) 등이 뒤를 이었다.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한세실업으로 전체 임원 18명 중 7명(38.9%)이 여성이었다. 반면 매출액 상위 30위 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이 10%가 넘는 곳은 CJ(11.5%), 한국가

스공사(11.1%), CJ제일제당(15.1%) 3곳에 불과했다. 기아자동차, 한화,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제철 등 6곳은 여성 임원이 0명이었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양성평등기본법에 신설된 여성 임원 현황 조사·발표 조항에 따라 올해부터 주권상장법인 2100여 개를 대상으로 성별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해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성 임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폭도 커지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민간기업 내 유리천장이 해소되고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LG화학, '구미형 일자리' 투자

▶1면서 계속

LG화학은 충북 청주, 전북 익산에 이어 구미에 양극재 공장을 신설함으로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의 내부 수급 비중을 확대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 제재 확대 가능성에 따라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의 내재화가 중요해진 만큼 이번 투자로 양극재 내재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구축 등 공장 운영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핵심소재 내재화를 통한 국산화율 제고에 박차를 가해 전기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투자주도성장〉

심각한 경제 상황에... 정부, '소주성' 잡고 '투자성'

기업 투자유도에 초점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연도 대비 누적 세수 효과(누적법)는 '마이너스'로 전망됐지만, 그 초점이 저소득층·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옮겨졌다. 세제정책 측면에선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세계 교역량 둔화, 반도체 부진,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와 제조업 업황 및 건설·설비투자 불황 등 내수 경기 부진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

반도체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저소득층·중소기업 모두 기업으로 세수 적자예상 불구 稅혜택 확대

진이 국내 설비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설비투자 및 민간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혁신성장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

개정안에 따른 기업들의 향후 5년간 세 부담 경감 효과(누적법)는 중소기업이 2802억 원, 대기업은 2062억 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은 직전 연도 대비 세수효과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 37억	▼ -1405억	▼ -4441억	▲ 4407억	▼ -11억	▲ 1487억
소득세	125억	408억	-145억	-138억		
법인세	-149억	-32억	-6604억	4989억		1,498억
부가가치세	44억	-793억	805억	52억	-10억	-10억
기타	17억	-988억	1503억	-496억	-1억	-1억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인 순액법 기준으로도 641억 원의 세 부담이 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순액법 기준으로 149억 원, 누적법 기준으로는 5463억 원 감소한다.

법인세는 1년간 한시 적용되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5320억 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확대(-500억 원)가 겹치는 2021년 순액법 기준으로 6604억 원, 누적법 기준으로는 6636억 원까지 감소 폭이 커지게 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율 인상 등 일부 고소득층

의 세 부담을 늘리고, 대기업 감면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올해에는 일부 세입 기반 확대도 추진하겠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세 부담 감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전면적인 '감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협의의 감세인 '세율 인하'가 포함되지 않았고,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감면도 대부분 한시에 그쳤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비롯한 일부 대책은 감면이 아닌 과세이연으로, 실질적 세수효과가 없다.

특히 순액법 기준으로는 향후 5년간 총 세수가 37억 원 늘어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전년 대비 세수효과인 순액법을 사용한다.

세율 변경이나 공제·감면 신설·폐지는 적용 시점부터 다음 세법 개정의 전제가 돼, 10~20년 뒤에서도 효과를 미친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 실장은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고, 이것이 전반적인 감세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연봉 5억이면 稅부담 110만원 ↑ 고소득자 증세로 세수손실 메워

'2019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와 '저소득층 감세, 고소득층 증세' 기조로 요약된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 급여액 기준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 원)에 ISA 만기계좌 금액이 추가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400만 원)에도 연금계좌 전환 금액의 10%가 300만 원 한도로 추가된다. 가령 매년 400만 원을 납입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ISA 만기계좌에서 4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기존에는 48만 원을 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84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폭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사적연금 세제 지원

향후 5년간(2020~2024년) 세 부담 귀책

세만·중산층*	중소기업	대기업	고소득층	기타**	계
-442억	-641억	606억	775억	-281억	37억

* OECD의 세만·중산층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 급여 6700만 원 이하)
** 비거주자, 공익법인, 귀책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등

확대로 향후 5년간 440억 원의 세수 감소(순액법)가 예상된다.

고소득층에 대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다. 법인세 감면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다.

근로소득공제에는 2000만 원 이상 한도가 설정된다. 한도가 설정되면 총 급여 3억6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기준 2%)가 적용되지 않아 총 급여 5억 원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 부담이 지금보다 110만 원 늘어난다.

이상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근로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넣었던 것"이라며 "일본도 근로소득공제에 한도가 있고,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방안

현행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			개정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최대주주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50% 이하 50% 초과	20% 30%	10% 15%		할증률	20%	0%

* 중소기업은 2020년 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상증법에 반영)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완화... 中企는 폐지

기업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경우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붙는 할증률을 20%로 통일하고, 내년까지 특례가 주어졌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 배제를 영구화한다.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평가를 개선한다.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붙는 할증률을 최대주주 소유 지분율과 상관 없이 20%로 적용한다. 현재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이면 20%(중소기업 10%), 50% 초

과 시 30%(중소기업 15%)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할증 배제를 영구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붙는 할증률이 0%라는 의미다.

그동안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프리미엄 간 비례관계가 높지 않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프리미엄이 낮다는 분석이 나와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北 미사일 도발 재개... 北·美 실무협상 포류 가능성

원산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최대 690여 km 비행
김정은 잠수함 시찰 이틀 만에... '저강도' 무력 시위 이어갈 듯
野 "정부 외교안보정책 실패" 與 "정쟁 소재 이용 말아야" 공방



단하고, 초당적인 안보 협력에 나서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92일째"라며 "역대 추경 중 두 번째로 늦게 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외면한 채 잇달아 군사 행보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내달 초 시행할 군사 연습이 종료될 때까지 '저강도' 무력 시위를 계속하며 대미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실무협상도 늦춰질 전망이다.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 중 두 번째 쏜 것은 69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새

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약 430km 비행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2발의 고도는 모두 500여km였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상황 발생 즉시 국가 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 주시해 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

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수함 시찰 이틀 만에 이뤄졌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위원장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둘러보고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 체계들을 파악했고, 이 잠수함은 동해 작전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전

했다.

여야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한국당의 대어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야당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에서 비롯했다고 공격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해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며 "다음 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비 기자 honey@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권력형 비리 엄정하게 임해달라”

“검찰 근본적 개혁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7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 준다면 공직을 훨씬 더 건강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 거 같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비 기자 honey@

당정 “추경 국회 통과하면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상반기 재정 집행률 65.4%... 당초 목표보다 4.3%p 초과

당정은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2개월 내에 추경의 7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확대 재정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집행 상황 점검 및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실집행 위주의 집행관리, 연말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65.4%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를 4.3%p 인트(P) 초과 집행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 원 중 190조7000억 원이 집행돼 65.4%의 집행률을 보였다. 당

초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178조 1000억 원(61.0%) 대비 12조6000억 원(4.3%p)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년 동기보다 3.3%p 올랐다. 실적도 175조 원(60.0%)으로 전년 동기 실적행률(56.8%) 대비 3.2%p 상승했다.

지방재정은 총 199조1000억 원 중 121조1000억 원(60.8%)이 집행돼 상반기 목표 116조5000억 원(58.5%)을 4조 6000억 원(2.3%p) 초과했으며, 지방교육재정도 총 19조7000억 원 중 14조 8000억 원(74.7%)이 집행돼 상반기 목표 12조2000억 원(62.0%) 대비 2조 5000억 원(12.7%p)을 더 썼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성 조치로 우리 경제가 힘들다. 정부는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 기자 jhj@

대리기사도 ‘갑질 보호’ 받는다

대출모집인 등 4개 직종 특고지침 적용 대상 포함

대리운전기사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직종의 근로자들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특고지침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례 등을 명시한 것으로 공정위의 위법성 심사 시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

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고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특고지침 적용 대상은 기존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6개 직종에서 10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일방적인 중요 계약 사항 변경행위 △불이익제공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특고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사건에서 특고지침과 보험법 등 직종별 개별법이 경합할 경우 특고지침(공정거래법)을 우선하도록 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2분기 실질 GDP 1.1% 성장

▶1면서 계속

지출항목별로는 정부와 민간소비가 확대된 가운데, 건설 및 설비투자와 수출은 증가로 전환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 2.5% 증가했고, 민간소비도 의료 등 준내구재와 의료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7% 늘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설이 늘어 1.4% 확대됐다. 설비투자도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2.4% 늘었다.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늘어 2.3% 증가했고, 수입은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3.0% 확대됐다. 특히 서비스 수출은 13.0% 급증해 2010년 2분기(15.6%) 이후 9년(36분기)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4월 말 일본의 일일 생일과 어린이날 등 골든위크로 연휴가 10일가량 됐던 데다, 중국 노동절 연휴가 겹치면서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제한은 측 설명이다. 실제 이 기간 일본인과 중국인 입국자 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1.5%와 44.2% 늘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6% 감소해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줄어 2분기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4.6%)와 2009년 1분기(-2.5%)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과 원유 등을 중심으로 한 수입가격 상승이 화학 및 운송장비 등 수출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 교역조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백색국가 배제’ 굳히는 日… 韓, WTO 제소 검토

평행선 달리는 韓·日 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결국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로까지 가게 생겼다. 일본은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준비하는 등 양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본은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1일부터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접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보낸 이메일을 포함해 총 3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전에도 유사한 절차가 있었으나 이번은 이례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6일께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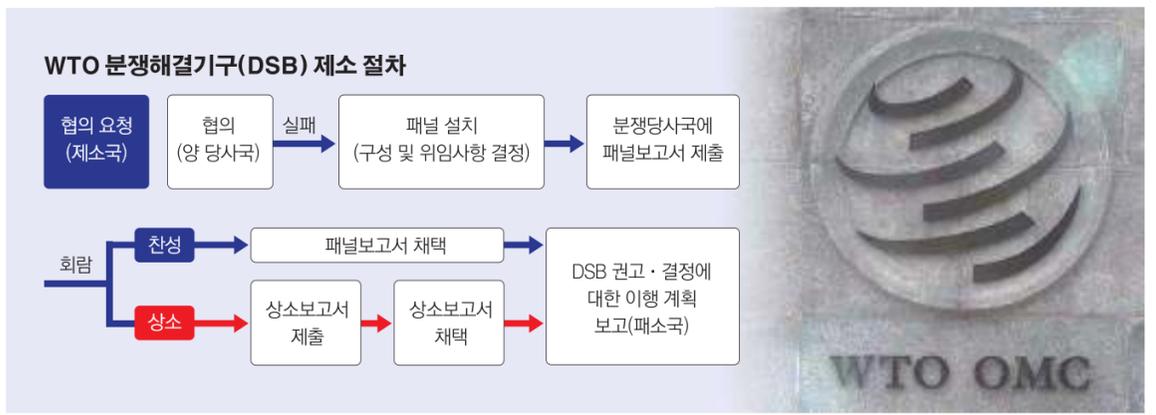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의 수출 관리에 대해 언급, “법적 근거

韓, 1대1 협의 제안했지만 日 “논의할 사안 아니다” 거부

수출 제한 3만여 의견 수렴한 日 이르면 내달 백색국가서 韓 제외 WTO 제소 뎀 최소 2년 걸릴 듯

가 불명확하다”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대한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맞붙었다.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수출 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라며 일본에 경제 보복 철폐를 요구했다. 그는 또 일본 측 대표단에 제네바에서 1대 1 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이하라 준이치 제네바 대사가 거부했다. 이하라 대사는 “수출 규제는 안보를 위한 관리 행위이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일본이 자기의 행위조차도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한일 양국이 제각각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회원국들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대사는 “두 나라 사이의 문제”라며 “일본과 한국이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입장

에서는 그동안의 결과만 놓고 보면 승률이 나쁘지는 않다. 일본도 이 점이 부담이다. 2004년 한국은 일본의 김 수입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2년 뒤인 2006년 한국산 김 수입량을 늘렸다. 또 올해 4월에는 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품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이유로 일본 쪽에서도 “WTO 무역분쟁에서 한국의 대응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WTO 제소로 갈 경우 결론이 나오기까지 갈등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WTO가 다루는 분쟁 안건이 산적한 데다 미국의 거부로 위원 7명 중 4명이 공석이다.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사실상 정지 직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제소부터 최종 판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WTO의 현재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점점 커지는 국제사회 ‘日 규제’ 비난 “삼성·하이닉스, 화웨이 아냐”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 붕괴 북한 등 적대 이웃만 좋을 것”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협회(AEI)는 이날 ‘한국 vs 일본, 북한만 승리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1일 전쟁이 발발했다”며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1일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민국 수출 규제를 처음 언급한 날이다.

AEI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으면 북한과 같은 적대적인 이웃만 좋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AEI 연구원은 전날 칼럼에서 이런 한일 갈등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한국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주장의 핵심은 한일 과거사 논쟁에서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을 크게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중국의 5G 지배력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바필드 연구원은 “5G 공급망에서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가 화웨이와 대적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이 수년 안에 세 번째 옵션이 될 수 있는데 미국 동맹국(일본)의 행동이 이런 옵션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 전자업계 관련 협회 6곳은 전날 한일 양국에 갈등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1일 일본이 무역, 경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와 관련해 무역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22일 사설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가망 없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규제 아닌 관리로 써라” 자국 언론 압박하는 日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자국 언론에 ‘수출규제’ 대신 ‘수출관리’라는 표현을 쓰라고 압력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4일(현지시간) NHK방송 취재진이 ‘화이트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부당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수출규제’를 언급하자 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 정부 의견을 정밀 조사 중”이라고 답한 뒤 “NHK는 수출규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를 사용하지 말고 이번 조치의 정확한 표현으로 전문가들도 사용하는 ‘수



세코 히로시게(오른쪽)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현지시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료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출관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더 나아가 자신이 NHK에 했던 발언을 트위터에 올리고 나서 “이 내용이 보도로 쓰일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에 특정 용어 사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www.knoc.co.kr

바른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에너지 자원, 석유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한국석유공사의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변화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에,

한국석유공사는 기본에 충실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가는 우리, 함께하는 희망”

반도체株 강세에 美증시 환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기업 실적 호조 힘입어 사상 최고치
미·중 무역협상 재개·공급과잉 해소 기대감도 상승세 이끌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시장 약화에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투자자들의 '리스크 온' 모드에 아슬아슬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랠리를 이어갔다.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보잉과 캐터필러 등의 실적 부진으로 전일 대비 0.29% 하락했지만, S&P500지수는 0.47% 상승한 3019.56로, 나스닥지수는 0.85% 오른 8321.50으로 각각 장을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은 반도체 관련주의 랠리에 힘입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반도체 대기업 30개사의 주가를 추종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이날 3.1% 급등한 1622.02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승폭은 지난달 26일 이후 가장 컸다. 지수는 올 들어 지금까지 40.4% 뛰었다.

이날 반도체 업종 랠리를 이끈 것은 기업 실적이었다. 반도체 검사장비업체인 테라다인은 전날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이 시장 전망을 웃돌고 강력한 매출 전망도 제시하면서 이날 주가가 무려 20.5%나 폭



등했다. 테라다인은 지난 2분기 순이익이 9740만 달러(주당 55센트)였으며 조정 후 주당순이익(EPS)은 66센트로 시장 전망인 61센트를 웃돌았다. 테라다인은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을 5억4000만~5억8000만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5억3890만 달러를 넘는 것이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도 어닝서프라이즈를 연출하면서 주가가 7.4% 뛴 129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TI의 지난 2분기 EPS는 1.36달러로,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 1.22달러를 웃돌았다. TI는 3분기 EPS가 1.31~1.5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전망은 1.38달러다.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웨스턴디지탈은

도이체방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각각 2.2%, 2.5%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 호조 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이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협상팀이 다음 주 중국 상하이 방문, 2개월여 만에 고위급 협상을 개최한다. 또 한일 갈등에 따른 사재기로 재고 소진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반도체 업계에 호재가 되고 있다. 제프리스의 마크 리파시스 애널리스트는 "TI 실적은 올해 내내 반도체 업계를 괴롭혔던 재고 문제가 완화할 조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러셀 트레이드스테이션 부사장은 "반도체 종목은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높고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라며 "그들은 새로운 기기와 혁신에 대한 모든 흥분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제품 주문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다가도 둔화 우려가 보이면 추락하는 등 많은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관련 수요에 대한 기대도 올해 반도체주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6조 '벌금폭탄' 맞고도
2분기 20조 매출 달성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그로 인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상황에서도 놀라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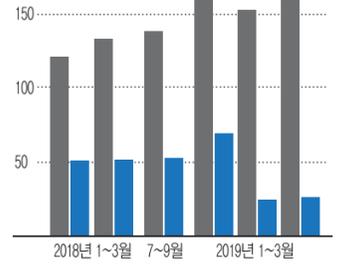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2분기 매출은 168억9000만 달러(약 19조 9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전문가 예상치(165억 달러)를 뛰어넘은 것은 물론 전 분기보다 증가폭도 컸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4억1000만 명으로 전 분기보다 3900만 명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벌금 20억 달러를 포함, 일시적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99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1.88달러를 넘어섰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날 페이스북의 주가는 전날보다 1.14% 오른 204.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린다고 발표했으나 되레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도왔다. 페이스북의 주가는 올해 들어 56% 뛰었다. 온갖 약재에도 불구하고 페이스

페이스북 실적 추이

(단위: 억 달러)

매출 순이익



북의 사업 모델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적이 증명하는 셈이다.

WSJ는 "페이스북은 성격이 좋은 문제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광고 사업 모델의 파워가 특히 크다고 분석했다. 페이스북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광고 수익은 2분기에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CNN도 페이스북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광고주들이 10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지배적 위상을 꼽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및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에 대한 규제 당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지난달 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전날에는 법무부가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서영 기자 jung2@

B737맥스 추락 여파
분기 손실 사상 최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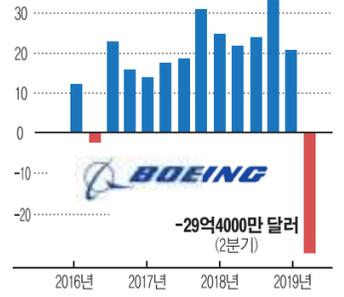


보잉

보잉 실적 추이

(단위: 억 달러)

순이익 순손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737맥스' 여객기 추락사고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에 일어난 두 차례의 추락 사고 여파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2분기에 창사 이후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보잉은 지난 2분기에 29억 4000만 달러(약 3조463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2분기 22억 달러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한 것이다. 손실 규모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의 16억 달러를 능가한다. 다만 주당 순손실은 5.82달러로 시장 예상보다는 적었다. 보잉이 지난 18일 737맥스 운항 중단에 의한 항공사 보상비용으로 49억 달러를 계상한다고 밝히면서 전문가들은 주당 6.67~6.69달러의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급감한 157억5000만 달러에 그쳤다. 어닝 쇼크에 이날 보잉 주가는 전일 대비 3.1%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다우지수의 발목을 잡았다.

보잉은 737맥스 추락 사고 여파로 올해 자체 실적 전망 발표를 포기했다. 전 세계에서 지난 3월 737맥스 운

항이 중단된 이후 보잉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기체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선했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 각국 항공당국의 승인이 언제 나올지 불확실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737맥스 운항 중단이 10월 이후에도 계속되면 보잉은 매월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가 지난 22일 보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하는 등 약재는 계속되고 있다.

보잉은 올해 4분기 737맥스 운항이 재개되기를 바라지만, 미국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초까지 운항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최대 수출 기업인 보잉의 침체는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이클 페럴리 JP모건체이스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37맥스가 생산이 중단되면 해당 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0.6%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총리관저 떠나는 메이... "英, EU 탈퇴 실현을" 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 앞에서 고별 연설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메이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가 꼭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의 뒤를 이어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이 이날 새 영국 총리에 취임하면서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존슨은 총리로서 첫 대국민 연설에서 "10월 31일 EU 탈퇴가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며 "예외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런던/신화연합뉴스

경제부흥 위해 금기 깬 사우디... 대형 테마파크 세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부흥을 위해 오래된 금기를 속속 깨고 있다. 작년에 35년간 금지했던 영화관을 부활시킨데 이어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대형 테마파크 건설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아랍뉴스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날 수도 리야드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사막에 초대형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키디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초대형 테마파크는 334km² 면적에 조성되는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스피드파크' '워터파크' '아트센터' '시티센터' 등 6개의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롤러코스터를 포함한 놀이공원과 동물원, 스포츠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3년 개장이 목표다.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키디아투자회사가 주최한 테마파크 관련 설명회에서 한 방문객이 전시물을 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임자는 "키디아에 특별한 점이 아주 많다"며 "우선,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부지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줄 출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락, 스포츠, 예술을 지역 사회 문화와 결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가 넘는 건축회사들이 참여했고 30개국에서 5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일환이다. 그는 사우디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흥도 그 일환인데, 사우디는 이를 위해 이슬람 경전에 근거해 오랫동안 금지해온 '오락'에 대한 빗장을 풀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사우디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사우디는 또 이번 테마파크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대폭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레이저 최고책임자는 "적어도 1만7000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jung2@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짜 짜

: 사회와 기업이 단짜이 되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짜짜짜' 박수 받음을 뜻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짜' 지어, 더욱 박수 받는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신한금융, 상반기 순익 1.9兆... '리딩뱅크' 수성

신한금융이 올 상반기 리딩뱅크 자리를 수성했다. KB금융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2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1위 자리를 추격했지만, 신한금융도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각각의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1조914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6.6% (1188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2분기 기준으로는 9961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 (9184억 원) 대비 8.5% 증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성공적인 오렌지라이프 편입과 글로벌 성장, 비이자 수익 기반 확대를 통한 신한만의 차별화된 성과 창출이 본격화됐다"며 "다변화된 이익창출 역량을 바탕으로 9000억 원대 경상이익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림의 이자이익은 대출 성장세 및 양

2분기 실적 8.5% 증가 '9961억' 오렌지라이프 편입·해외 성장 등 비이자 수익 기반 성과 본격화

순이자마진은 0.04%p 떨어지

호한 비은행 실적으로 올 상반기 3904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하며 비중이 확대됐다.

6월 말 기준 그룹의 NIM(순이자마진)은 2.03%로 전분기 대비 0.04%p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 신한금융의 ROE(자기자본이익률)는 10.9%, ROA(총자산이익률)는 0.82%로 양호한 수준을 지속했다. 6월 말 기준 그룹 BIS기준 자기자

신한금융 상반기 실적 (단위: 원)

구분	실적	전년 대비
영업이익	5조6500억	11.30%
이자이익	3조9041억	5.60%
당기순이익	1조9144억	6.60%
NIM	2.03%	
ROE	10.90%	
ROA	0.82%	



본비율은 14.3%으로 지난해 말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비은행 그룹사 중심으로 비이자이익 성장세가 확대됐다"면서 "특히 글로벌, GIB 부문은 체계적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동반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 매 분기 괄목할 만한 성장 추세를 이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룹의 총 자산은 6월말 기준 691조 원으로 지난해 말(603조 원)보다 14.4% 증가했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28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상반기 2713억 원의 순이익으로 같은 기간 대비 3.8% 감소했다. 신한금융투자는 1428억 원의 상반기 순이익을 거뒀다. 21.9% 감소했다.

이밖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각각 상반기 780억 원, 147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신한캐피탈은 708억 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75억 원, 신한저축은행은 112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무역갈등 고조, 경기 둔화 전망 등의 불안 요인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정책을 보완했다"며 "비용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그룹 판관비 및 영업이익 경비율을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금융은 올 상반기 1조83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1% 감소한 수준이지만, 2분기에 9911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뱅크샐러드, 오늘부터 '계좌이체' 가능

카뱅·케뱅크 서비스 우선 연동 내달부터 예·적금 가입도 실시

앞으로 은행 앱을 이용하지 않아도 뱅크샐러드 앱(APP) 안에서 은행 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예·적금 상품 가입과 그룹 계좌 연동 서비스 등 뱅킹 서비스 다변화로 인한 자산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뱅크샐러드는 26일 '계좌간 이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가 이달 초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인가를 받아 근거가 마련됐다. 이용자들은 뱅크

샐러드에서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계좌간 이체 기능으로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계좌간 이체 서비스는 우선 카카오톡과 케이뱅크를 통해 연동될 예정이다. 이달 말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 은행들과도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제3자에게 보내는 송금이나 간편결제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자산관리할 때 월급통장이랑 자산관리 통장이랑 다른 경우가 있어 유저들의 요구가 많아 하나의 앱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뱅크샐러드에서 예·적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용자 소비 패턴을 분석해 카드 추천뿐만 아니라 예적금도 추천해주는 것이다.

뱅크샐러드는 월 5000장 가량의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앱을 통해 금리 비교, 상품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연인 간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가족가계부' 서비스로 그룹별 자산관리 서비스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은행·카드·대출·보험 등을 하나의 앱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앱 서비스다. 이용자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준다. 지난달 말에는 금융혁신 샌드박스에 우선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돼 '온·오프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뱅크샐러드는 6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 400만명, 연동 관리금액은 130조 원에 달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IC칩 훼손' 신용카드, ATM 대출 제한

내년부터 전면 금지... 위변조 카드 활용 범죄 차단

내년부터 집적회로(IC) 칩이 훼손된 국내 신용카드를 통해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대출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마그네틱(MS) 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IC칩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신용카드의 경우 MS 방식으로 자동 전환돼 사용이 가능해왔다. 고객 편의 등의 차원에서 IC칩 결재와 마그네틱 결재로 우회해 사용하는 '폴백(Fallback)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카드업계 등

과 공동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은행·자동화기기 운영사·여신협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의 경우 해외카드사가 카드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9월부터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 ARS,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동화기기, 카드가맹점 등에서 지속적으로 IC칩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교체발급 필요하다.

서지연 기자 sjy@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영업관리
- 무역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서비스관리
- 경영정보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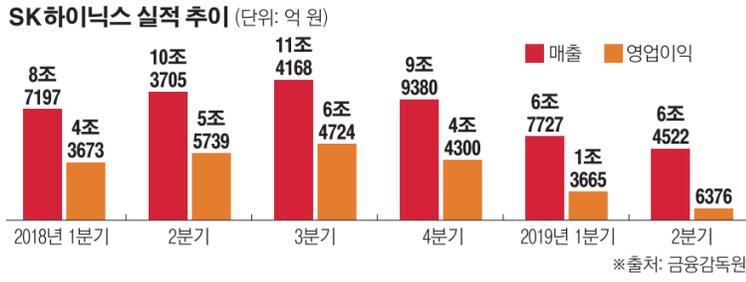
- 예산관리
- 자산관리
-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SK하이닉스 영업이익 1년 만에 6조→6000억

2분기 실적 9분의 1토막
무역전쟁에 D램 값 약세
연말쯤 수요 회복 기대
日소재 재고 확보 안간힘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졌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와 D램 수요 부진, 낸드 플래시 가격하락 등 약세 속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도 커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분기 매출액 6조 4522억 원, 영업이익 6376억, 순이익 5370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각각 5%, 53%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매출 38%, 영업이익은 89%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분기 54%에서 올 2분기 10%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D램은 수요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모바일과 PC 시장에 적극 대응해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13% 늘었으나, 가격 약세가 지속돼 평균판매가격은 24% 하락했다. 낸드 플래시도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회복세로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40% 증가했으나, 평균판매가격은 25%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서버용 D램 수요가 여전

히 부진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모바일 D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D램 서버 고객들의 재고는 작년 말 기준 8~9주 정도에서 올해 2분기 말에는 재고수준이 6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수요 상황을 고려해볼 때 2분기 D램 재고는 기존 예상보다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하반기 재고 감소 속도도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이 되어야 서버 D램 고객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 가동률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기보다는 업체별로 다르긴 하나 TDC(기존의 데이터센터·Traditional Data Center) 30~40%,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업체는 60%로 기존의 일반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관건은 서버업체들의 재고다. 재고 수준이 감소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정상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모바일 D램 수요는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고객사로부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운영하던 고객사 기조가 바뀌어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와 그래픽 D램 수요는 지난 분기(2분기) 말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낸드 플래시 시장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공급 업체들의 재고 부담이 빠르게 줄어들며 수급 불균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격 하락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낸드 가격의 경우, 그동안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었던 공급사 재고수준이 3분기부터 회복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수급 및 가격 안정화는 4분기에 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미세공정 기술 개발과 고용량,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품 판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D램은 10나노급 1세대(1X) 및 2세대(1Y) 생산 비중을 연말 80%까지 높이고, 10나노급 2세대 공정을 적용한 제품은 하반기부터 컴퓨팅용 위주로 판매를 시작한다.

낸드 플래시는 72단 중심으로 운영하되, 하반기부터 96단 4D 낸드 비중을 늘리고 사양 스마트폰과 SSD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한다. 또한, 128단 1테라비트(Tb)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도 양산과 판매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96단은 4분기와 내년 상반기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128단은 하반기부터 본격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된 일부 품목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밴드 다변화,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생산 차질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25일 정의선(왼쪽)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정의선, 인니 대통령 면담 현지 투자 직접 요청 받아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면담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시장 점령을 위해 출장 중인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24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면담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는 가장 진취적인 회사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적극 투자에 나서 꼭 성공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며 직접 챙기겠다. 한국 방문 때도 현대차를 방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인도네시아는 매우 도전적인 시장이고 시장진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며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에 감사드린다. 시장진출 검토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단순한 판매 확대보다는 고객이 진정 좋아하는 제품, 판매방식 등에서의 혁신을 모색하고 미래 기술도 과감히 접목하는 방안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공기업무 장관 등 인도네시아 주요 부문 장관과 시장 관계자들도 별도로 만나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인도네시아 대학생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현지 젊은 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관심사항 등을 주제로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다. 지난해 산업 수요는 104만7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했다. 올해도 작년보다 4.4% 증가한 108만 대 수요가 예상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두산, 2분기 영업이익 4600억...인프라코어 등 견인

전자·산업차량·배터리 호실적

두산은 연결 재무기준 2분기 매출 4조 9883억 원, 영업익 4566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1%, 4.2% 증가했다.

㈜두산의 자체사업 실적을 가능할 수 있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살펴보면, 2분기 매출은 8318억 원을, 영업이익은 543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전 분기 대비 25.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2% 감소했

으나, 전 분기보다는 44.8% 늘었다.

전자, 산업 차량, 연료전지 사업에서 전년 및 전 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전자 사업부는 5G 및 반도체 소재용 Hi-end 제품 판매를 확대해 전년 대비 매출이 16% 증가했다. 산업 차량 사업은 북미 지역 판매량 증대로 전년보다 7% 매출이 성장했다. 연료전지 사업은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납품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40% 증가했다. 수주는 2분기에만 2595억 원을 기록해 상반기 총 4598억 원

의 수주를 올렸고, 수주 잔액은 1조8000억 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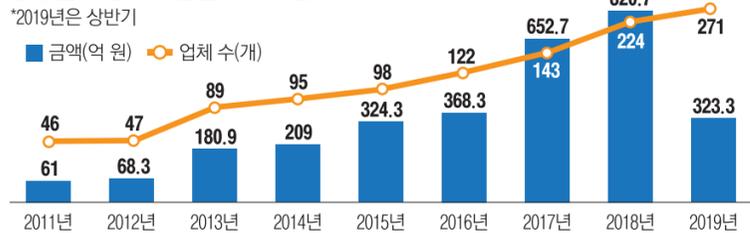
23일 실적을 발표한 두산인프라코어는 2분기에 매출 2조2000억 원, 영업이익 2972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8%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건설 기계 사업에서 중대형 장비 판매를 늘리는 수익성 위주의 판매 전략과 자회사 두산팍캐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 상승이 두드러졌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두산밥캣은 2분

기 매출 10억2200만 달러, 영업이익 1억 3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매출액은 6.1%, 영업이익은 5.0% 증가했다. 주요 선진시장에서의 선전과 수익성 개선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호조를 이어갔다. 차입금 상환 등 재무개선 활동을 통해 순이익은 전년대비 15.3% 증가한 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2분기에 매출 1조 1906억 원, 영업이익 1571억 원을 기록했으며, 환율 효과에 힘입어 각각 전년대비 14.7%, 13.1% 상승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삼성전자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이력



삼성, 반도체 협력사에 역대 최대 인센티브

271개사에 323억 지급

삼성전자는 반도체 협력사 271개사에 총 323억3000만 원 규모의 상반기 ‘생산성 격려금’과 ‘안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상반기 인센티브는 협력사 임직원 1만9000여 명에게 지급되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2010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협력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총 3059억 원으로, 생산·품질 관련 협력사를 시작으로 환경안전·인프라, 설비 유지보수, IT 협력사 등 지급 대상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1차사에서 2차 우수 협력사까지 확대하며 상생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협력사 인센티브는 생산성 격려금과 안전 인센티브로 구성돼 연 2회 지급되고 있다. 생산성 격려금은 생산·품질 관련 협력사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인센티브는 환경안전·인프라 관련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반도체 협력사를 위한 ‘환경안전 전문 교육시설(삼성전자 DS부품 협력사 환경안전 아카데미)’을 개관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며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양성을 돕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 포스코 기업시민헌장 선포

최정우 회장 “더 나은 세상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높여”

포스코는 25일 포항 본사 대회의장에서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를 구현하기 위한 전문(前文)과 실천원칙을 담은 기업시민헌장을 선포하며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최정우(사진) 회장과 포스코 그룹 임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노경협의회 대표, 협력사 및 공급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헌장 전문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은 사회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기업은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다’며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며 지속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시민헌장은 그동안 포스코 그



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와 토론회, 설문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과 이사회, 기업시민위원회, 외부 전문가의 의견

및 토론 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최 회장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제적 이윤만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올바른 길”이라며, “기업시민헌장이 구성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일하는 방식에 준거가 되어 사업(Business), 사회(Society), 국민(People)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생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기업시민헌장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말 기업시민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송 기자 kissong@

KCGI, 조원태·현민 회동 요청

KCGI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과 조현민 전무를 상대로 회동을 요청했다.

KCGI는 25일 낸 보도자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며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계기로 KCGI는 한진그룹의 낙후된 지배구조 개선, 저평가된 기업가치 제고, 고객 만족도 개선 및 사회적 신뢰 제고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GI는 “갑작스러운 조양호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한진그룹이 약속한 △승원동 부지 매각 및 파라다이스 호텔 개발 사업 재검토를 통한 사업구조 선진화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 △주주 중심 정책 확대 등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진칼의 조원태 대표이사 및 조현민 전무를 상대로 글로벌 경영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한진그룹 경영진의 전략을 듣고, 한진칼의 책임경영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가능한 일시를 8월 2일까지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장남〉

박세창 “금호석화, 아시아나 입찰 참여 안 돼”

**아시아나 매각 작업 시작
“일괄 매각만 고려” 분리 일축
금호 관계인 참여 제한도 강조**



향을 밝힌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요약투자설명서 및 비밀유지약속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CS 증권은 이후 비밀유지약속서를 작성한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서(IM, Information Memorandum) 등 원활한 매각을 위한 전반 서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25일 자사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31.0%)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매각 중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CS증권)은 아시아나항공 입찰 참여의

으로 투자설명서(IM, Information Memorandum) 등 원활한 매각을 위한 전반 서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매각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금호산업이 매각 주권사 등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

른 시일 내에 아시아나항공의 정상적 매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세창(사진) 아시아나HDT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한 그룹의 입장을 밝혔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몰려나온 상황에서 장남인 박 사장은 사실상 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박 사장은 25일 ‘공고와 관련해 그룹 내부적으로 원하는 매수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매수자가 선택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입찰제안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사장은 “평가 기준은 정해진 바 없다”며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나 회사 특수관계인은 어떠한 형태로든(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 또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며 “향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역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이 이번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뛰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일부 계열사의 분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 통매각’ 원칙을 고수했다. 박 사장은 “일괄 매각이 원칙이고 다른 옵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것(통매각)이 매각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박 사장은 공고 이후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사장은 “이전까지는(매각) 프로세스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역측이 나왔을 텐데 오히려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매각 시작되면 구체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라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시련 딛고 강해진 ‘갤폴드’ 9월 출격

삼성 갤럭시 폴드 결함 보강 출시 '9월 출시 예정'

문제점	분석	개선
1 화면 보호막 제거 시 화면 작동 멈춤	보호막이 베젤 끝까지 딱 맞게 붙어있지 않아 임의 제거 가능	보호막을 베젤 아래로 넣어 임의 제거 불가
2 보호막 제거 안 해도 화면 깜빡거림	힌지(접하는 부분) 상·하단 노출 부분 충격	•힌지 상·하단에 보호 캡 적용 •폴드전·후면본체
3 디스플레이 힌지 부분 이물질 들어가	힌지 상·하단 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서 미세한 틈 생김	사이 틈 최소화 •디스플레이 뒷면에 메탈 층 추가

※출처: 삼성전자

화면보호막 제거 못하게 보강 양쪽 디스플레이 틈새 최소화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 제품인 ‘갤럭시폴드(Galaxy Fold)’를 9월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을 진행했으며, 갤럭시 폴드의 디자인을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개선 사항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로 유효성을 검증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에 탑재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Infinity Flex Display) 최상단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다.

화면 보호막이 디스플레이의 한 부분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접고 펴는 사용 경험은 유지하면서 외부 이물질로부터 제품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했다.

갤럭시 폴드의 힌지 상하단에 보호 캡을 새롭게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뒷면에 새로운 메탈 층을 추가해 디스플레이를 더 잘 보호하도록 했다. 또 힌지 구조물과 갤럭시 폴드 전·후면 본체 사이 틈을 최소화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최종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9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갤럭시 폴드는 펼쳤을 때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7.3형 디스플레이로 확장된 사용성을 제공하지만, 접었을 때는 한 손으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송영록 기자 syr@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자동화로 고용 늘었다

휠소터, 지역별 자동 분류

택배 기사는 배송만 집중

적재도우미 900명으로 증가

물류 자동화가 이뤄지면,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통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 곳도 있다. 바로 CJ대한통운이다.

CJ대한통운이 ‘휠소터’를 설치하며 물류 자동화 시대를 열자 관련 일자리가 생겼다. ‘휠소터(Wheel Sorter)’란 택배 상품에 부착된 송장의 바코드를 빠르게 인식한 후 컨베이어벨트 곳곳에 설치된 소형 바퀴(휠)를 통해 택배 상자를 배송지역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비를 말한다.

25일 기자가 찾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서울지사에서는 휠소터 도입으로 물류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물류 분류를 하는 도우미 일자리가 늘어났다. 현재 CJ대한통운에서만 물류 도우미로 일하는 인력은 900여 명이다.

물류 도우미는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휠소터 덕분에 생겼다. 택배기사는 분류 작업을 하지 않아 효율적인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 분류 도우미는 일자리가 생겨 돈을 받게 되는 구조다. 택배기사가 일일이 분류하던 택배를 휠소터가 지역별로 분류하면 분류 도우미는 주소와 도로별로 세세하게 택배를 정리한다. 배송순서에 따라



25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 모습. 휠소터가 택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차량에 택배를 싣는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택배 도우미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용 형태는 택배기사가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다. 평균 5명의 택배기사가 한 명의 물류 도우미를 고용한다. 한 명의 분류 도우미가 여러 명의 택배기사의 물량을 감당할 정도로 근무 강도가 낮기 때문이다. 택배기사는 도우미에게 줄 급여를 다른 기사와 나눠 지출 부담이 적다. 월수입도 짝퉁한 편이다. 아침 7시 반부터 분류가 끝나는 점심까지 일하면 월 110만~1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특히 택배 상품의 소형화로 어르신들과 여성들도 부담 없이 업무가 가능하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분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 서브 터미널에서 분류 도우미로 일하는 정모(27)씨는 “휠소터

가 이미 분류해 나눠 힘든 일이 거의 없다”며 “남편도 택배기사로 일하는데, 배송할 때 시간적 여유가 생겨 좋아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휠소터 설치가 완료되면 도우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휠소터는 현재 CJ대한통운 178개의 서브 터미널 중 169곳에 마련됐다. 나머지 서브 터미널에도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만 8000여 명의 택배기사 중 25%인 4500여 명이 분류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으며 꾸준히 수가 늘어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휠소터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했다”며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이 곧 고객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고 말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한화에너지, 3억 달러 규모 그린본드 발행

한화에너지가 그룹 계열사 최초로 3억 달러(약 3500억 원) 규모 해외 공모방식의 그린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그린본드는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돼 유통되는 국제채권으로, 발행 대금의 용도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의 친환경 투자로 한정돼 있다.

25일 한화에너지에 따르면 미국법인인 한화에너지 USA 홀딩스가 발행한 3년 만기 채권은 발행금리가 미국 3년물 국제금리에 70bp(0.7%)를 더한 2.482%이며 표면 금리는 2.375%다.

한화에너지는 미국, 아시아 및 유럽 투자자로부터 발행물량 3억 달러의 7.7배에 해당하는 총 23억 달러의 유효주문을 모집했다. 그린본드 전문 투자자와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미국 투자자의 참여 비중이 49%에 달했다.

한화에너지는 이번엔 조달한 자금을 태

양광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폭이 줄어드는데 대비해 물품을 미리 구매하는 데 일부를 사용하고 태양광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은 태양광 투자세액공제(ITC)를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까지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26%, 2021년에는 22%로 혜택이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류두형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한화에너지의 미국 사업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및 긍정적 전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성장 및 추가적인 사업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글로벌비스, 동남아 첫 국외법인 베트남에 설립

아세안 물류사업 진출 교두보

현대글로벌비스가 동남아 지역에 처음으로 국외법인을 설립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25일(현지시각)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서 베트남 법인(Hyundai Glovis Vietnam Co., Ltd.)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법인은 현지에서 물류 사업을 하고 향후 아세안 국가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 법인은 자동차 및 비(非) 자동차 물류 사업과 현지 신사업 개발을 담당한다. 연간 약 8만 대 생산능력을 갖춘 현지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일반 수출입 물류까지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베트남 법인을 동남아 물류시장 확대의 첨병으로 삼고 네트워크

를 넓히겠다는 의지다.

베트남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로서 위로는 중국과 맞닿아 있고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국가와 연결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남쪽으로도 진출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대(對) 아세안 교역 비중은 43%로 아세안 권역 내 1위 교역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내년 상반기 호찌민 영업 사무소를 추가 설립하고 하노이 법인과 베트남 전역을 아우르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하노이 법인은 자동차 물류를 담당하고 호찌민 사무소는 남부권역에서 비(非) 자동차 물류 영업을 맡아 베트남 및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콜드체인, 섬유·의류 등 소비재 중심의 물류 사업을 실행할 방침이다. 김기송 기자 kissong@

SK 착한렌터카 2기 모집

사회적기업에 무상 임대

SK네트웍스가 ‘모빌리티뱅크’의 두 번째 지원 대상 모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모빌리티뱅크’는 SK네트웍스의 렌터카 사업 브랜드인 ‘SK렌터카’가 보유한 중고 경상용차(다마스)를 활용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동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 등에 1년간 무상 임대하고 각 기업은 업체 특성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상생 협력 모델이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모빌리티뱅크 1기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 58개사를 선정하고 참여기업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다. 참여기업들은 모빌리티뱅크를 통해 차량 구매 및 보험, 수리, 정비 등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소득, 방역, 냉난방기 세척업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을 추진해 16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다양한 콘텐츠에 너무 놀라지 **마!**
5만원대 5G, 더 이상 망설이지 **마!**



차원이 다른 U+ 5G

- 프로모션 기간(19.4/3~12/31) 내 선택약정할인으로 '5G 스페셜' 요금제를 가입한 동시에 'LTE 요금 그대로 약정할인' 프로모션 가입 시, 24개월 간 5G데이터 무제한 이용 가능
- 부가전화(15XX, 16XX 등)는 기본제공량 300분 초과 시 과금·국제전화는 별도 요금으로 과금
- 음성 통화량이 월 3회 이상 하루 600분 또는 한달 총 10,000분 초과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량 제한



U+ 5G 대한민국 5G 브랜드 가치평가 3관왕 달성



박영선 “구글과 협력, 스타트업 해외 진출 돕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구글 ‘창구’ 프로그램 참여기업과 ‘밋 업 데이’ 행사
게임·앱 분야 스타트업 60곳 선정... 최대 7억 사업비 지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글은 협조자인 동시에 경쟁 관계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남구 구글캠퍼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구글과 손잡고 게임·앱 분야 혁신 창업자를 육성하는 ‘창구 프로그램’의 참여기업과 ‘밋 업 데이’ 행사를 열었다.

3월 출범한 창구프로그램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과 앱·게임 개발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구’글플레이에서 각각 앞 자리를 따왔다. 중기부가 185억 원, 구글이 120억 원을 출연해 게임·앱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기업은 창업 3~7년 사이에 있는 게임·앱 기업이며 60곳이 선정됐다. 선발된 기업은 중기부로부터 최대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박 장관은 최근 ‘데이터 주권론’을 강조하며 클라우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글로벌 기업에 데이터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구글과 협력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구글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기술은 도전을 받아 업데이트 된다”며 “독점이 바로 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 아마존 등이 전 세계 데이터 시장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도전을 받아 기술을 업데이트 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에 유니콘(자산가치 1조 원 이상의 벤처) 기업이 9개인데 그 중 7개 기업이 게임과 앱에 기반을 두었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구글캠퍼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기부

다”며 참가 기업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인기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탄생시킨 게임 업체 크래프톤을 언급하며 “크래프톤의 성공 배경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창업 정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나아갈 시장은 글로벌시

장”이라며 “뜻뜻하게 인내하면서 더 강한 힘으로 도전하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창구 프로그램 외에도 중기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거점 센터인 코리아스타트업센터가 8

월 미국 시애틀에 문을 열고 9월 인도에 설립된다”며 “내년에는 핀란드와 스웨덴에도 세워질 예정이어서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언급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센터를 지방 곳곳에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11월 한-ASEAN특별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19’도 중기부가 주관한다. 올해 5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조직 위원 16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컴업 2019’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중관춘, 미국 실리콘 벨리, 프랑스 스테이션-F와 같은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을 표방하는 ‘스타트업 파크’도 중기부가 추진한다. 박 장관은 “인천 송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 파크도 스타트업이 서로 소통하고 만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인터뷰 정성봉 농금융원 투자운용본부장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마케팅 등 후속지원 중요”

정성봉(사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운용본부장은 25일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알아서 팔리지 않는다”며 “그런 면에서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농식품기업에게 훌륭한 마케팅 채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받는 것을 중개하는 투자방식이다. 최근 2~3년 사이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할 때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농업에 도입한 게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이다.

그는 “기존 저리 융자 지원 방식은 농지와 같이 목돈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만, 크라우드펀딩은 장래성이 높은 사업이 만들어질 경우 농업 전체의 질적 양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과 모집 금액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성장 가능성 큰 농식품, 제대로 알릴 기회 있어야
젊은 인재들, 농업 도전 늘어 성공사례 많아질 것

농업무 수탁 운영했으며, 2010년 6월 24일 농식품모데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2013년 1월 31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2014년 9월 30일 현 명칭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주요 사업은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와 농식품모데 펀드 운용, 농림수산 정책자금 검사, 농특회계융자금 운용·관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관리·운용이다.

정성봉 본부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육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가 다수에게 소액으로 지원

추세다. 2018년에는 투자형 6개 기업(약 5억7천만원), 후원형 153개 기업(약 3억5백만원) 등 159개 기업에서 약 8억8천만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덕분에 유망 우량 농식품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진입은 물론 부가적인 고용창출까지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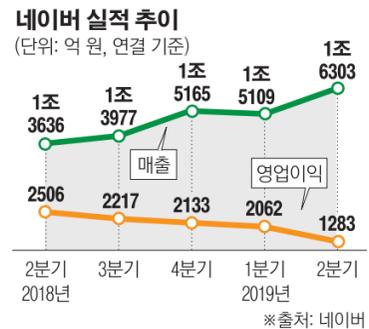
최근 젊은 나이에 농식품 관련 사업을 하려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정 본부장의 판단이다. 특히 전문 지식을 가진 후에 농업에 뛰어들어 인재들도 생겨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농식품 분야에 들어오고 있다”며 “3~4년 이후엔 성공 사례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공동기획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투데이

네이버, 영업익 반토막에도 “공격적 투자”

2분기 영업익 1283억 원
지난해보다 48.8% 감소
라인페이 마케팅비 영향
‘네이버파이낸셜’ 설립...
대출 등 금융사업 영역 확장



네이버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 실적 악화에도 네이버는 공격적인 사업다각화와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5일 네이버는 2분기 영업이익 1283억 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48.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6303억 원으로 19.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278억 원으로 90.1% 줄었다.

영업이익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일본 자회사인 라인의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페이’의 마케팅 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라인은 일본 간편결제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약 3300억 원 규모의 송금 캠페인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마케팅

을 위한 일회성 비용 지출이었다고 설명했다.

매출을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광고와 비즈니스플랫폼, IT플랫폼, 콘텐츠서비스, 기타플랫폼 등 전 부문에 걸쳐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검색 고도화와 쇼핑의 성장에 힘입어 비즈니스플랫폼 부문의 매출이 7159억 원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네이버는사내독립기업(CIC)인 네이버페이 부문을 물적 분할 형태로 분사해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에서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네이버가 보유한 7곳의 사내독립기업 중 신설 법인으로 분사한 곳은 네이버웹툰과 네이버페이 두 곳뿐이다.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출과 보험 등 금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앞으로 기회가 왔을 때 IPO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2019년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스 신임 대표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파이낸셜 사업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라며 “은행업을 하진 않지만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시장도 강화한다. 현장 결제 서비스인 ‘테이블 오더’는 현재 네이버 분사 인근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블 오더 서비스는 3분기에 공식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B2B부문 강화를 위해 여의도에 클라우드 존을 오픈하고 공공, 금융, 의료 등 고객들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tati@

웅진코웨이 “의류청정기 렌탈, 효자노릇 톡톡”

의류관리기+공기청정기 큰 호응... 전기레인지 렌탈도 인기

웅진코웨이가 지난해부터 선보인 의류청정기, 전기레인지 등 신규 렌탈 제품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지난해 5월 의류청정기를 출시하고 3개월 후인 8월 초부터 렌탈 판매를 시작했다. 의류청정기는 의류관리기와 공기청정기를 하나로 결합한 제품이다.

웅진코웨이는 소비자 조사 결과, 의류청정기에 대한 구입 의사는 높은 편이나 일시불 구입 시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에 따라 렌탈 서비스를 도입했다. 렌탈 출시 후 지난해 10월 준비된 물량 4000여

대가 첫 주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판매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며 회사 지속 성장을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5월에 ‘코웨이 의류청정기 더블케어’를 출시했다. 의류청정기 더블케어(사진)는 △의류관리기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를 하나의 제품에 담은 멀티 제품이다. 이 제품은 합리적인 렌탈 비용과 높은 공간 활용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1월부터 전기레인지 렌탈 판매를 시작했다. 전기레인지는 가스



레인지와 비교해 음식물 조리 시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 배출이 없어 인기를 얻고 있다. 웅진코웨이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렌탈 판매 이후 월평균 판매량이 약 4000여 대를 넘어섰고 있다. 일시불 판매할 때와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홈플러스 사장〉

임일순 “쏠집포 온라인 물류 지원… 스페셜 매장 확대”

日배송건수 4배 늘려 3년 내 온라인 매출 2.3조 달성 목표
“새벽배송, 당장은 실시 어려워… 리츠 공모 재도전 할 것”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허문 도전을 통해 온라인 매출은 3년 내 기존 4배로 키우겠습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 모든 점포를 각 지역별 ‘고객밀착형 온라인 물류센터’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지난해 6000억 원 수준이던 온라인 사업 매출액을 올해 1조 원에서 2021년 2조3000억 원으로 수직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전국 107개 점포의 온라인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밀착형 온라인 물류센터’를 2021년까지 전국 140개 전 점포로 확대한다. 임 사장은 “피커(picker, 장보기 전문사원)는 기존 1400명에서 4000명, 콜드체인 배송차량은 기존 1000여 대에서 3000여 대로 늘려 하루 배송건수를 기존 3만3000건에서 12

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온라인 배송이 크게 몰리는 지역은 점포 물류 기능과 규모를 보다 업그레이드한 ‘점포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 Center, 이하 FC)’로 커버한다. 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고객 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 포장,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안양점, 원천점을 비롯해 2021년까지 10개 점포에 FC를 장착할 방침이다.

창고형 매장 ‘스페셜’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임 사장은 “기존 매장을 리뉴얼하는 방식을 택해 창고형 할인점 시공 비용을 경쟁사 대비 10분의 1로 줄이며 최근 6개월 만에 16개 점포를 전환시킬 수 있었다”면서 “특히 부진 점포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환 점포와 12% 이상의 매출신장을 차이를 기록했다, 코스트코와 이마트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이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사업전략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역발상’ 혁신안을 공개했다. 임 사장은 전통적인 장보기와 온라인 쇼핑이 공존하는 매장 구현 전략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트레이더스와 인접한 점포의 매출 신장률은 20%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스페셜 점포를

을 하반기 30여 개, 2021년까지는 70-80여 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페셜’의 온라인 진출도 시도한다. 이날 공개한 ‘더 클럽(the CLUB)’을 통해 홈플러스는 25일부터 16개 스페셜 매장에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에는 70-80여 개 스페셜 전 점포에서 ‘전국 당일배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업무는 대거 재편된다. 이는 경쟁업체들이 무인 계산대를 확충하면서까지 인건비 축소에 나서는 것과 달리 최근 홈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선 배경이다.

앞서 지난 1일 홈플러스는 무기계약직 사원 1만4283명(전체 임직원의 62%)을 정규직으로 발령내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같은 정규직 전환은 국내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임 사장은 “(업무 재배치)를 염두에 뒀다”면서 “점포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현격한 수준이거나 불이익을 감수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근 불고 있는 ‘새벽배송’ 열풍과는 다소 거리를 뒀다. 임 사장은 “홈플러스 온라인은 점포 기반 물류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 막혀 새벽배송을 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도 “새벽배송은 눈여겨 볼 사업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온라인 시스템은 주문을 하면 점포 진열 상품을 고객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갖추지 못한 탓이다. 이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려면 이른 시간에 점포 문을 열어야 하지만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받는 국내법상 불가능하다.

리츠(REITs) 공모에도 장기적으로 재도전할 방침이다. 임 사장은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는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도 전략 사업으로 키우고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면서 성숙하지 못한 리츠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면서 “부동산 자산이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자금 확보도 가능한 리츠는 꼭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LG생활, ‘럭셔리’ 앞세워 나홀로 실적 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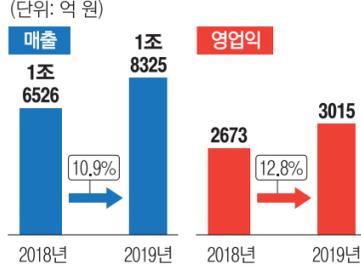
숨·오후 등 고급 화장품 성장 발판 상반기 매출·영업의 신기록

LG생활건강이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사상 최대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화장품 로드숍 등 국내 화장품업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역시 두 자릿수 성장하며 ‘나 홀로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취임한 이래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LG그룹 최장수 CEO인 차석용 부회장의 매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한 1조8325억 원, 영업이익은 12.8% 성장한 3015억 원, 당기순이익 역시 12.9% 늘어난 2115억 원을 달성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 1분기 분기 사상 처음으로 3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기록을 이어나갔다.

LG생활건강의 호실적은 ‘럭셔리’ 화장품이 이끌었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 2분기 매출은 1조1089억 원, 영업이익

LG생활건강 2분기 실적 추이



은 225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모두 16.3% 성장했다. 럭셔리 화장품이 중국을 포함한 해외 뷰티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LG생활건강의 대표 브랜드 ‘후’와 ‘숨’, ‘오후’가 경쟁력을 갖춘 결과다. 우선 ‘후’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24% 늘었고, ‘숨’과 ‘오후’의 초고가 라인 ‘숨마’와 ‘더 퍼스트’는 각각 67%, 43%나 성장했다.

생활용품 사업은 2분기 매출 3434억 원, 영업이익 282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 3.0% 증가했다. 지난해 실시

한 구조조정을 통해 탄탄하게 다진 사업 체질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가며 프리미엄화를 추진한 결과 국내뿐 아니라 중국의 헬스&뷰티 스토어 왓슨스(Watsons) 및 온라인 채널에서 꾸준히 성장했다.

음료사업은 2분기 매출 3803억 원, 영업이익은 47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0%, 4.0% 증가했다. 최신 고객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맛의 신제품 출시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의 새로운 확보해온 ‘코카콜라’, ‘씨그램’, ‘파워에이드’ 등 주요 브랜드들이 꾸준히 성장했고, 시장점유율도 작년 말 대비 0.6%p 증가한 31.9%를 기록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1·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상반기 최대 실적까지 올렸다. LG생활건강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1.9% 증가한 3조7073억 원, 영업이익은 13.2% 늘어난 6236억 원, 당기순이익은 13.9% 성장한 4373억 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 7000억 원, 6000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실현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고당도 포도 맛보세요
이마트가 25일부터 31일까지 10여 종, 350톤 물량을 푸는 ‘포도 페스티벌’을 열고, 제철을 맞은 국산 유명산지 포도와 미국산 씨 없는 포도를 판매한다. 일교차가 큰 분지인 남원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은 ‘남원 춘향골 캠벨포도(1.5kg, 박스)’를 1만 800원에, 씨가 없고 알이 큼직한 ‘거봉(2kg, 박스)’을 1만2800원에 판매한다. 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미국산 씨 없는 포도’를 손잡이가 달린 피크닉 비구니 패키지에 담아 ‘미국산 청·적 혼합 포도 피크닉팩(1kg)’을 9900원에 선보인다. 사진제공 이마트

새웃 입은 칼스버그 “5대 수입맥주 도전”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 칼스버그 대니쉬 필스너 리뉴얼 출시

“3년 내에 칼스버그를 수입맥주 5대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는 25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리뉴얼한 ‘칼스버그 대니쉬 필스너(Carlsberg Danish Pilsner·이하 칼스버그·사진)’의 출시를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토종기업으로 국내 위스키 시장 1위에 오른 골든블루는 한층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과 향, 친환경적 패키지를 강화한 ‘칼스버그 대니쉬 필스너’를 29일부터 국내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번에 선보이는 ‘칼스버그’는 단순한 패키지 리뉴얼을 뛰어넘어 제품, 패키지, 브랜드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칼스버그’는 라거 중에서도 맛과 향이 풍부한 필스너 제품이지만 필스너의 단점으로 꼽히는 씹쓸한 맛을 산뜻하게 개선하고 새롭게 선보인 전용잔 역시 안쪽 바닥면에 미세하게 칼스버그 홉 모양(Hop leaf logo)을 각인해 지속적으로 버블을 만들어내도록 했다.



김 대표는 “칼스버그 리뉴얼을 앞두고 영업조직을 사업본부로 승격시키는 등 유통망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며 “칼스버그가 국내에서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지만 한층 업그레이드된 품질과 전문인력을 갖춘 만큼 수입맥주 상위권 도약이 머지않았다”고 자신했다.

골든블루는 새로운 ‘칼스버그’와 함께 바쁘고 정신 없는 생활 속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워라벨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할인행사서 日맥주 제외” 편의점도 나섰다

편의점 4사, 8월부터 동참
CU는 5개 제품 발주 중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 운동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편의점들이 수입 맥주 할인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빼기로 했다.

25일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는 8월부터 진행하는 ‘수입 맥주 4권에 1만원’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아사히와 기린이치방, 삿포로, 산토리 등 일본 맥주 10종과 호로요이 4종이다.

대신 CU는 국산맥주 카스와 클라우드를 ‘4권에 1만원’ 행사에 넣는 한편, 에비스 등 5개의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발주 자체를 중단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의 GS25도 내달부터 진행하

는 수입 맥주 할인행사에서 일본 제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코젤과 필스너우르켈과 미니사케 등에 대한 판촉 행사도 중단한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8월부터 수입 맥주 할인 행사 리스트에서 일본산 맥주를 제외할 방침이다.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일본 맥주 판매를 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편의점 본사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특히 최근 편의점을 중심으로 일본 맥주 판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편의점 CU의 최근 15일(7월 1~15일)까지 일본 맥주 판매는 직전 기간(6월 16~30일) 대비 23% 하락한 반면 국산 맥주는 4.1% 증가했다. 같은기간 GS25의 일본 맥주 판매는 24.4% 추락했지



사진제공 BGF리테일

만, 국산 맥주는 4.5% 반등했다. 이마트 24 역시 일본 맥주는 -20.2%로 집계된 데 반해 국산 맥주는 4.6%를 기록했다.

CU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라며 “다만 고객들의 선택권 자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상향 줄고 하향 늘고... 우울한 투자의견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에 어닝쇼크 발표 기업 늘어
이달 목표주가 하향 137종목... 전월대비 3배 증가
코스피 상반기 순익 29% ↓·2분기 영업이익 37% ↓ 전망

어닝쇼크 여파로 증권사들이 상장사들의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대내외 악재가 쏟아지면서 추가 하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발행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목표주가 하향조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는 총 364건(137종목)이다. 지난달(139건)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다. 목표가격은 평균 13.8% 줄었다.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는 총 25건으로 지난달(6건)에 비해 4배이

상 급증했다. 실적시즌이 시작됐지만 어닝쇼크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증권사들도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발빠르게 수정하고 있다.

특히 대내외 악재가 겹친 제약·바이오와 여행업종의 목표주가 하향조정이 두드러졌다.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11곳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내렸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5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약

한미약품 목표주가 추이
(단위 : 원, 7월 기준)

증권사	목표주가		증감률
	현재	이전	
이베스트투자증권	400,000	570,000	-29.82%
KB증권	420,000	590,000	-28.81%
메리츠증권	340,000	460,000	-26.09%
키움증권	350,000	460,000	-23.91%
삼성증권	430,000	530,000	-18.87%
하나금융투자	500,000	580,000	-13.79%
대신증권	500,000	570,000	-12.28%
미래에셋대우	615,000	680,000	-9.56%
NH투자증권	530,000	580,000	-8.62%

※출처: 에프앤가이드

29.82% 조정했다. KB증권(-28.81%), 메리츠증권(-26.09%) 등 목표주가를 큰 폭으로 하향했다. 삼성바이로직스 역시 8개 증권사가 목

표주가를 평균 15.21% 낮췄다. 키움증권은 41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SK증권도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내렸다. 하나투어(-33.33%), 제주항공(-16.78%), 진에어(-20.69%), 셀트리온헬스케어(-16.84%), 셀트리온(-7.79%) 등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폭이 컸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 LG전자, 네이버, S-oil 등 어닝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 상향은 각각 134건(71종목), 8건(7종목)에 불과했다. 상승 폭도 평균 11.69%에 그쳤다. 현대차, 유한양행, 삼성엔지니어링, LG이노텍 등 대부분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다. 이중 제일기획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11개사로 가장 많았고, 현대글로비스, 대림산업, 삼성증권이 뒤를 이었다.

한편 부진한 실적 이외에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추가 하향조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땅한 상승 재료가 없는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역시 어두운 상황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연초 대비 29.2% 감소했는데, 2분기에만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37.4% 줄어든 전망"이라며 "갑작스럽게 한일 무역분쟁 리스크도 부각되면서 국내 상황은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오너 개인회사 내부거래로 3세 지배력 키워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BYC그룹

속수제조업체인 BY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일부 관계사는 매출액의 100%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너 3세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재원을 확보한 뒤 이를 그룹 지배력 확보에 활용하는 방식이 눈에 띈다.

BYC그룹은 오너 일가가 개인회사들을 통해 BYC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 중 높은 내부거래로 주목받는 회사는 △신한에디피스 △남호섬유 △백양 등이다.

한석범 사장의 장남인 한승우 이사가 지분 58.34%, 한 사장이 16.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에디피스는 의류, 메리야스, 잡화 등의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 68억 원 중 39.71%에 해당하는 27억 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내부거래 비율은 △2016년 34.94% △2017년 36.71%를 기록해 매년 소폭 증가 추세다.

특히 신한에디피스는 올해 시간외매매와 장외매수 등을 통해 BYC 보통주 지분

BYC그룹 내부거래 (단위 : 원)

	신한에디피스			남호섬유			백양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	83억	79억	68억	3억	2억	3억	7억	9억	12억
내부거래	29억	29억	27억	3억	2억	3억	3억	5억	6억
영업이익	15억	16억	16억	36만	147만	-1	영업이익	-1565만	-5억
비율(%)	34.94	36.71	39.71	100	100	100	비율(%)	42.86	55.55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에디피스 작년 매출 68억 중 40% 내부거래 올해 BYC 지분을 10.5%까지 올려 2대주주 등극

율을 5.53%(3만4526주)에서 10.57%(6만6026주)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BYC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오너 3세인 한승우 이사의 지배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의류판매시설 장식장 제조업을 하는 남호섬유의 내부거래는 더 심각하다. 한 사장이 지분 60%를 갖고 있는 남호섬유는 지난해 전체 매출 3억 원 전부를 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였다. BYC, BYC마트 등과의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이다. 2016·2017년에도 내부거래로 매출의 100%를 거뒀다.

비주거용 건물 등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백양은 한 명예회장의 장녀이자 한 사장의 누나인 한지형씨가 2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최대주주다. 지난해 12억 원의 매출액

중 절반인 6억 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였다. 내부거래 비율은 △2016년 42.86% △2017년 55.55%로, 남호섬유와 마찬가지로 매출의 절반 가량을 BYC, BYC마트 등을 통해 거뒀다.

BYC는 자산 5조 원 미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00%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BYC 관계자는 "현재 BYC의 내부거래는 법의 범위에 벗어나지는 않는다"며 "내부거래라는 것은 계열사들이 경쟁력 갖춰 다른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줄어들게 되는 데 그런 차원에서 계열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김영부, 대출받아 개인회사 지원 논란

(팬젠 대표)

팬젠 지분 13%로 114억 차입 주가 하락세에 담보권 실행 우려

김영부(사진) 팬젠 대표가 개인회사인 와이비파트너스 지원을 위해 대규모 주식 담보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제품 출시 지연으로 팬젠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담보권 실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부 대표는 팬젠 보유지분 13.01%에 대해 161억7600만원을 담보로 설정하고 총 114억8000만원을 차입했다. 김 대표는 담보설정액 중 151억7600만 원을 와이비파트너스에 주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상태다.

김 대표 본인의 이름으로 설정한 금액은 10억 원이다. 보유지분 대부분을 와이비파트너스 대출에 담보로 제공한 셈이다. 만약 담보권이 전부 실행되면, 김 대표의 지분율은 1.89%로 줄어든다.

와이비파트너스는 김영부 대표가 운영하는 투자사로, 정보통신,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제조업 등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대표이사에 이어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주주(52.62%)로 자리하고 있다. 투자 성적은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8500만원, 영업손실 1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43억1000만원이지만, 매도가 능증권의 평가손익을 반영한 총포괄손실



은 1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모다의 신주인 수권부사채(BW)에 43억 원을 투자하면서 손해를 입기도 했다.

현재 모다 주식, 채권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파티게임즈(4.70%), 주연테크(2.30%) 등 32개사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가 개인투자자 성과에 집중하는 사이 팬젠은 적자 지속에 이어 추가하락 등 이고고를 겪고 있다.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해 연속 적자가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력제품의 출시가 늦어지면서 상장 당시 계획과 달리 실적 턴어라운드도 멀어진 상황이다. 바이오업종 투심위축과 겹쳐 주가도 연일 하락하고 있다. 25일 장중 6900원으로 상장 이래 최저가로 떨어지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영부 대표의 주식담보 대출은 대표 개인적인 일로, 자세히 알 수 없다"며 "김 대표가 개인회사인 와이비파트너스에 돈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지분을 쓰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영부 대표는 과거 보광 자금부장 출신으로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1999년 보광 탈세 사건 당시 경리 실무자 5명 등과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이정희 기자 ljh@

<기업 PR>

전문가들이 직접 펀드 고르고 운용하는 '랩어카운트'

메리츠증권, '메리츠펀드마스터 Wrap' 출시

메리츠증권은 25일 국내,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메리츠펀드마스터 랩(Wrap)'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펀드를,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펀드를 고르고 운용하는 랩어카운트다.

이 랩 서비스는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와 상품부서가 협업해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경기와 시장전망에 따라 투자 유망한 자산과 국가 등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펀드 전문가들이 운용성과와 철학이 우수한 펀드를 선정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는 이경수 센터장이 부임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평가에 3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점이 국내외 우량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며 적립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년 이내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시 별도 수수료가 없다. 또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용상태와 향후 운용 전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입과 문의는 메리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가입 후 홈페이지,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도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빗썸 지수 (2019년 7월 26일 18: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120 창립 120주년

우리금융그룹

해외여행 시작은 우리은행에서

위비뱅크로 환전하면 90% 환율우대!

• 주요통화(USD/JPY/EUR)에 한함



온국민환전
이벤트 진행중!
(2019.07.01부터)

완전히 새롭게, 더 간편하게
위비뱅크

간편송금 이렇게 쉽게!
금액 넣고, 계좌 선택하고, 보내면 끝!
* 수수료 면제는 기본!

환전 잘하는 꿀팁!
환율우대 최대 90% (주요통화 USD/JPY/EUR)
기타통화 최대 55% (단, VND 30%)

▶ 간편송금은 1회 100만원 / 1일 200만원 한도 내 이용 가능합니다. ▶ 환전수령은 신청인 본인 외 대리수령 불가합니다. ▶ 영업점 사정에 따라 원하시는 권종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령일 전 해당 영업점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앱설치, 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9.06.27 준법감시인-1173 심의필(유효기간:2020.02.11)

We Believe 우리은행

청약 예비당첨자 5배 늘렸더니... '줍줍' 열풍 사라졌다

(미계약 물량을 주워담는 것)

분양시장에서 현금 부자들의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약어)' 열풍이 사라질 분위기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예비당첨자 비율이 공급 물량의 5배수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인기 분양 단지의 미분양·미계약 물량을 잡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분양 단지는 힐스테이트 광고산(사전 접수), 광안리수빌(사전 접수), 시온캐슬(사후 접수), 성남신영역 하늘채 랜더스원(사후 접수),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사후 접수) 등 5건으로 집계됐다. 6월에는 디에이지 포레스트(사후 접수) 단 한 곳만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

무순위 청약은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됐다. 사전 접수와 사후 접수로 구분해 진행했는데, 특히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들도 청약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자금력이 충분한 현금 부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다 보니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일반 청약경쟁률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청약통장 보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순위 청

유주택자도 가능한 '무순위 청약' 경쟁률 과열에 예비당첨 비율 확대 이달 '무순위' 진행 5건에 그쳐 제도 도입 5개월 만에 '유명무실'

'무순위 청약'이란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미계약·미분양에 대비해 사전에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1인 1청약으로 중복 청약만 무효로 할 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사전과 사후로 나눠 진행된다.

약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앞서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청약제도 변경 이후 지난 달 13일까지 전국에서 20개 민간 분양단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고, 3개 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본 청약경쟁률보다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월에 일반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



3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모습. 이 단지는 무순위 청약에서 21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리역 해링턴플레이스'의 일반분양 평균 경쟁률은 31.08대 1이었지만, 무순위 청약(사후 접수) 평균 경쟁률은 213.69대 1을 기록했다. 4월에 일반분양한 경기 구리시

'한양수자인 구리역' 아파트도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은 10.53대 1로 낮았지만, 무순위 청약(사후 접수)은 191.19대 1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현금 부자'만 우게 했던 무순위 청약도 제도 도입 5개월 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줍줍' 현상을 근절하고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한 영향이다.

롯데건설은 5월 '김읍 롯데캐슬 클라시아' 무순위 청약 사전접수를 했다. 이때 평균 경쟁률이 32.64대 1에 달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달 분양한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는 무순위 청약 사전 접수를 하지 않았다. 예비당첨자 비율이 5배수로 확대된 만큼 무순위 청약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것이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일반분양 물량은 1195가구(특별공급 68가구 제외)다. 예비당첨자는 1195가구의 5배수인 5975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예비당첨자를 적용한 이후에도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무순위 청약(사후접수)을 할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로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 발매

COVER STORY

정년 없이 일을 놀이로 즐기자

- PART1. 슬기로운 은퇴 생활 -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 PART2. 정년연장 논의 - 은퇴 연령,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일까
- PART3. 은퇴 후의 좌충우돌 - 재무적·비재무적 솔루션 제안
- PART4. 내가 만드는 제2직업 - 창업과 사회공헌 일자리
- PART5. 인생 N잡러의 '잡 철학' - "일이란 자신을 찾아가는 천직 여행"
- PART6. 은퇴자들의 사소한 로망 -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수다원' 지휘자
- PART7. 은퇴자 기고 - 나는 오늘도 사람을 만난다



선라보가 만난 사람



새로 얻은 삶, 죽는 날까지 젊음으로 채우겠다
요트 타는 DJ 겸 실내건축가 최병찬



앞을 내려놓아라! 이놈들아, 앞이 곧 장애이나라!
전통무예 기천문(氣天門) 박사류 문주(門主)



"작은 집의 매력, 손수 지어봐야 합니다"
한겨레작은집건축학과 문건호 교장

웰에이징 어지럼증, 빈혈 아니라 중병의 전조증상이라면?

어지럼증을 겪고 있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가벼운 증상이라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3명 중 1명은 앓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의사들도 있다. 가벼운 어지럼증은 휘청일 때 잠깐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몸을 가누지 못한 장소가 깨닫는 증상이라면? 혹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실제로 어지럼증을 겪는 이들 중 상당수는 낙상 등의 피해를 겪기도 한다. 신경과 전문의인 박지현(47) 세란병원 진료부장은 "어지럼증은 그 원인이 다양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귀촌 나부터 잘해보더라도

귀촌을 위해 집을 샀으나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다. 남의 토지 위에 들어앉은 건물만 샀으니까. 건물 값은 900만 원. 토지 사용료는 연세(年費)로 치른다. 폐가에 가까운 건물이었다. 까짓것, 고쳐 쓰면 그만이지! 그런 착심으로 덤벼들었다. 워든 똑똑똑 고치고 바꾸고 꾸미는 재주가 있는 그는, 단지 두 달 만에 쓸 만한 집을 만들어냈다. 민병덕(64) 씨의 귀촌살이는 그렇게 시작했다. 조출하고도 웅골차게.



타박타박 산책 섬 속의 작은 섬, 소무의도 한 바퀴

인간 무의도에 딸린 섬, 소무의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2012년에 소무의도 둘레길인 무의바다누리길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소무의도는 해안선 길이가 2.5km에 불과하지만 섬 여행의 매력을 다 갖췄으니 가성비 좋은 섬이라고나 할까. 섬 둘레를 걸으며 고깃배가 들락거리는 아담한 포구와 정겨운 섬마을 풍경, 74m 높이의 아담한 산과 푸른 바다를 두루 즐길 수 있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계속되는 더위,
힘을 더해주는 보양 레시피

상속과 증여 톨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임의후견과 유언,
그리고 신탁 이야기

고고하게 인천·경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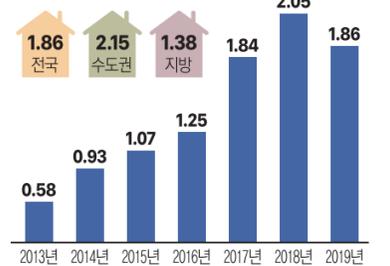
'고고'는 오래된, 고상한, 뛰어난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 수식어에 걸맞은 맛집, 이름하여 '고고가게'를 찾아본다. 지하철 인근으로만 선별해 찾기도 쉬우니, 어서 고고(go-go)를 외치자!



상반기 전국 땅값 1.9% ↑ · 거래량 19% ↓

상승률 세종 > 광주 > 서울 순
거래량은 대구 제외 모두 줄어

연도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작년을 제외하고 10년 새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1.86% 올랐다. 하지만 상승률은 전년 동기(2.05%) 대비 0.19%포인트 줄었다. 상반기 땅값 상승률만 놓고 보면 지난해 2.05% 오르며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를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선 서울(2.28%)·경기(2.06%)·인천(1.91%) 모두 전국 평균(1.8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2.66%)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2.48%)·대구(2.26%)·전남(2.05%)·부산(1.91%) 등

4개 시도도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34만9000필지(986.1km², 서울 면적의 약 1.6배)로 지난해(166만 필지)보다 18.8%(31만1712필지)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도 11.6%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3만1000필지(916.5km²)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기업 PR>

대림산업,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내달 분양

대림산업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오피스텔을 내달 중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짜리 4개 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이뤄진다. 오피스텔은 총 225실로 전용면적 66㎡(45실), 83㎡(180실)로 구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있다. 일산역에서 급행 기준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까지 18분, 홍대입구역까지 23분, 용산역까지 32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앞으로 고양대교가 있고, 인근 고양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는 일산신도시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특히 일산 3대 학원가로 꼽히는 후곡학원과 가깝다. 일산초·한빛초·일산중·일산고 등도 인근에 있다. 일산신도시 내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아마트타운 생활편의시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오피스텔 투시도. 사진제공 대림산업 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주택전시관은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에 마련됐다. 2022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윤석열 “檢 본질 지키는 데 집중”

검찰총장 취임식서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강조

“공정경쟁 반칙엔 단호히 대응” 대기업 수사 강화될지 주목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사진)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시장 경제의 공정한 경쟁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농단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중소기업의 사소한 불법까지 수사권을 발동할 것인지는 ‘과도한 개입 자체’의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평소 소신을 재차 강조한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호’의 대기업 수사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법 집행에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는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총장이 각종 대형 경제사건을 수사하면서 지켜왔던,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만큼 반칙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윤 총장은 검찰의 소추 기능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전생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해왔던 만큼 형사법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총장은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친환경 디젤 광고 소비자 기만” 손해배상 소송 원고 일부 승소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인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차주들이 차량 구입대금의 10%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고모 씨 등 123명이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본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딜러 회사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에 나타난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클린 엔진 등의 내용은 피해 차주들이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표시광고법에 따라 거짓

과 과장성, 기만성이 있는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은 환경오염적 차량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고, 차주들은 운행자로서 불안정하고 불편한 심리 상태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했을 것”이라며 “차주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소유물의 사용가치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훼손돼 리콜 조치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딜러 회사 16곳에 대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디젤 차량이 관련 법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며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어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없었고, 매매 목적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해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중용 기자 deep@



빗물놀이터에 참방~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물순환 시민문화제’에 참여한 아이들이 빗물놀이터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 징역 5년

형량 1년·추징금도 6억 줄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1년, 추징금은 6억 원 각각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납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꼭 뇌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들이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검사가 제2예비적 공소로 이원수 전 기조실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

지하철 4·5·7·8호선 노후 전동차 전량교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짚은 고장율 유발하는 지하철 4·5·7·8호선 전동차 중 교체가 필요한 노후 전동차 전량을 2025년까지 신형 전동차로 교체한다.

특히 신형 전동차에는 2중 안전장치와

공기 질 개선 장치가 장착되고, 좌석과 통로도 더 넓어진다.

25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호선(470칸), 5호선(608칸)은 전체를 교체하고, 7호선(136칸), 8호선(90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총 226칸 모드를 바꾼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전동차량 노후가 특히 심한 4호선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예산은 1724억 원(서울시·서울교통공사 각 50% 부담)을 편성할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안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알고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안을 알고 실천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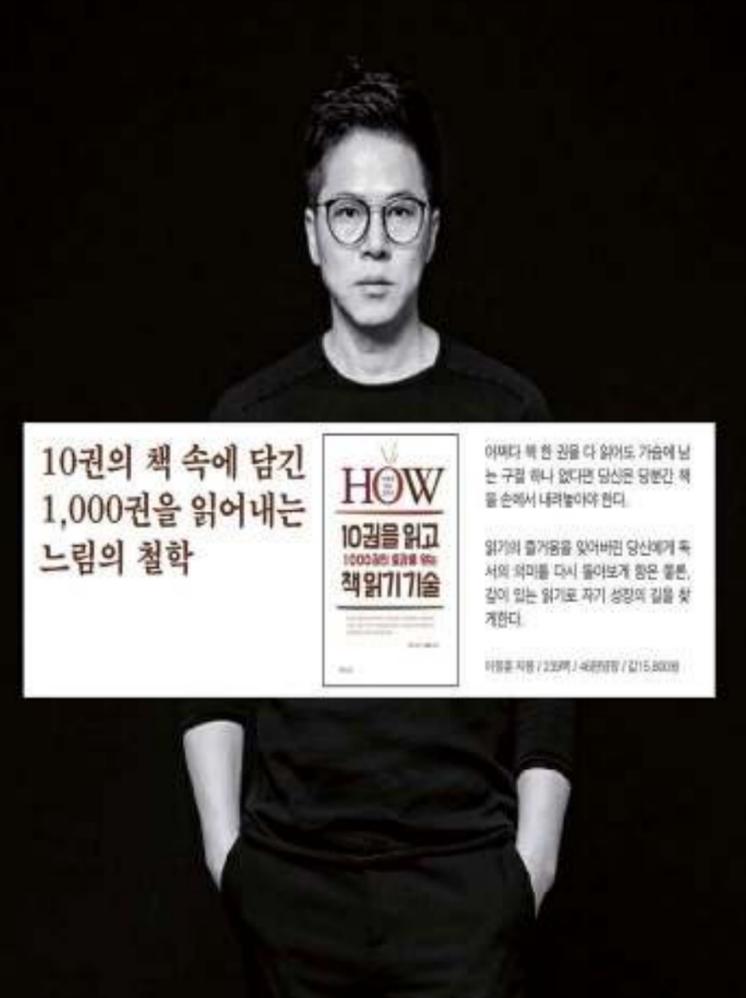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안이자,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유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8면 | 148x210mm | 2019년 7월 26일 발행 | 21,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지식을 얻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얻어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훈 저 | 232쪽 | 488원 | 215.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올 댓 트립 홍콩에 가면 ② 옛 모습 간직한 '삼수이포'



삼수이포 전통시장인 페이 호 스트리트 마켓(Pei Ho Street Market).

야경은 넣어둬... 홍콩의 '힙지로'가 있으니

〈힙(Hip)+을지로〉

불별더위다. 주변에서 "덥다"라는 불평 일색이다. "숨 막혀. 우리나라 왜 이래?" 그들에게 답했다. "홍콩 다녀오면 이 날씨도 감사할 뿐이야."

7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홍콩에 다녀왔다. 정말 찜찜한 더위였다. 바깥과 실내의 온도 차는 상당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기분일까. 가이드는 홍콩에선 실내 온도를 평균 16~19도에 맞춘다고 했다. 한국처럼 24~26도로 해놓으면, 그가 계엔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홍콩이 체질에 맞는 듯하다. 평소 실내 온도 높이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습하다습한 날씨를 잡기 위해선 평균 온도를 낮추는 게 백번 옳다고 생각했다. 다행인 건 들어가는 가게마다 에어컨을 '뽕뽕하게' 틀어놓아서 실내에 들어가면 바깥 날씨를 잊을 수 있었다. 어찌 됐든 욕수를 한참 뿜어내고 나니 기력이 다 빠졌다.

삼수이포 전통시장인 페이 호 스트리트 마켓(Pei Ho Street Market)에 다녀왔다. 성수를 맞본 것도 그때였다.

◇ 시장 한복판에 미술랭(미쉐린) 맛집이 있다니 = 촌충한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전시 회도 가야 하고, 꼭 먹어야 하는데 못 먹은 것도 많았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1순위는 여행인 편)

그래도 삼수이포는 가야 했다. 여행지에 갔으면 '현지인처럼(Travel Like a Local)' 즐겨야 하지 않은가. 홍콩의 힙지로라 불리는 삼수이포로 향했다.

삼수이포는 1960년대 홍콩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로컬 분위기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 MTR 삼수이포역을 중심으로 시장과 식당이 분포해 있다.

삼수이포 시장을 걷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를 판매하는 맛집을 만날 수 있다. 소개하고 싶은 곳은 '완키 스토어'다. 2016~2018년 미술랭 스트리트 푸드에도 올라간 유서 깊은 떡집이다.

가판에는 다양한 종류의 떡들이 즐비해 있다. 가게 주인은 한국어가 능통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는데, 괜히 반가웠다. (해외 나가면 유독 애국자 됨)

HK \$ 6~8(한화 900~1200원) 정도면 달달한 맛의 떡을 맛볼 수 있다. 입맛을 사로잡은 건 찹쌀로 만든 떡들. 시그니처는 팔이 들어간 푸딩이라고 하는데, 달달하니 맛이 좋았지만, 입으로 포장된 찹쌀떡이 취향 저격이었다. 깨 들어간 찹쌀떡은 한국에서 맛본 찹쌀도넛의 떡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허름하지만 현지인 삶 그대로... 예술가 모이는 개성 강한 곳 유네스코 등재된 홍콩 첫 공공주택 '메이호 하우스' 둘러보고 전통시장 안 미술랭 디저트 '완키 스토어' 찹쌀떡 취향저격 '경와 두부 공장' 두부 푸딩 맛본 뒤 더위 날려줄 생수 한 잔



① '완키 스토어'의 가장 맛있었던 찹쌀떡. ② 영원히 잊지 못할 생수 'Go Green'의 시원함. ③ '경와 두부 공장'은 늘 손님이 북적하다. ④ 메이호 하우스 박물관에 있는 1950년대 홍콩 가정의 모습.

1960년대부터 삼수이포에서 역사를 이어온 '경와 두부 공장'도 방문했다. 홍콩 최고의 두부 푸딩을 만드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우리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두부를 디저트로 즐겨왔다. 열심히 만든 두부를 판매대에서 팔고, 옆에 있는 가게로 두부를 갖고 가면 요리를 해준다고 한다. 두부를 사려는 인파로 이날도 북적였다.

◇ '생수 건배' 한번 하시죠 = 대낮의 삼수이포는 활기찼다. 요즘 한국의 전통시장 분위기는 침체됐다고 하는데, 홍콩은 달랐다. 어릴 적 시장에서 봤던 풍경이 재현되는 듯했다. '난닝구(러닝셔츠)' 하나 입고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떠는 아저씨들의 모습이 반가웠다.

하지만 홍콩은 홍콩이었다. 볼거리, 먹거리는 풍부했지만 습한 날씨에 지치는 심신은 어찌할 수 없었다. 수분 섭취가 간절했다. 그때 내 손에 쥐어진 생수. 이

름은 'Go Green'. 이걸 생수(生水)가 아니었다. 성수(聖水)였다. 몸과 마음이 '홀리(Holy)'해졌다.

30년 이상 홍콩에서 거주한 가이드 선생님이 준 물은 특별하겠지? 뚜껑에 물을 받아 먹어본다. 맛은 일반 생수와 다르지 않았다. 당시 한국의 친구들로부터 한국 기온이 홍콩보다 2도 정도 높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뻘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불쌍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Go Green'은 생명수였다.

◇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 홍콩 하면 으레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빌딩을 떠올린다. 화려한 도시, 눈을 땔 수 없는 야경을 보기 위해 홍콩을 찾는 이들이 많다. MTR를 타고 주룽(구룡)반도 깊숙한 북서쪽으로 향하면 도심의 화려한 빛이 사라진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옛 건물 아래로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 펼쳐진다.

1950년대의 삼수이포는 홍콩으로 망명 온 중국 난민들을 수용하던 판자촌이었다. 홍콩 최초의 공공 임대주택이 설립된 이후에는 서민들의 주거단지이자 공업 단지로 역사를 이어왔다.

낡고 보잘것없어도, 불완전함이 갖는 매력은 무시할 수 없다. 삼수이포가 그렇다. 요즘 예술가들은 삼수이포로 모여들고 있다. '리틀 투 숍(Little Two Shop)'은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 홍콩의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빈티지 숍은 오래전 여인네들이 썼을 뜨개질 도구부터 오래된 타자기 그리고 장난감들까지 다채로운 옛 물건을 간직하고 있었다.

◇ 삼수이포의 건물들 = 옛 홍콩의 모습을 간직한 삼수이포는 몽콕에서 차로 1.6km 떨어져 있으며 허름하지만, 현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영화 촬영지로도 종종 등장했다. 2002년 개봉된 '무간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트랜스포터:사라진 시대'에서 배경지로 나왔다.

삼수이포는 침사추어나 센트럴, 크즈웨이베이에서 본 세련된 도시 정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홍콩식 빨래건조대인 대나무 건조대가 남아있는 오래된 아파트도 볼 수 있다.

메이호 하우스(Mei Ho House)도 삼수이포에 가면 꼭 둘러야 할 명소다. 1953년 12월 25일 섹킵메이 지역의 화재로 거의 5만8000명의 홍콩 사람이 집을 잃었다. 메이호하우스는 화재 현장에 지어진 홍콩의 첫 번째 공공주택으로 1954년에 완공됐다. 총 29개의 콘크리트 블록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개발돼 철거됐지만, 홍콩 정부는 41동 건물 가운데 한 채를 남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메이호하우스에는 첫 번째 공공주택을 그대로 보존해 당시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다. 1950~1970년대 홍콩의 생활환경과 문화 그리고 생활습관을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시대의 물건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물관 2층에는 판자로 벽과 천장을 대어 살았던 당시의 주거형태를 재현해 놨다. 좁은 공간에 빼곡하게 들어찬 세간살이를 보다 보면, 그 시절의 생활상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느낌이다. 이 방 한 칸도 그들에겐 생존이었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는 홍콩인들의 삶도 담겨 있다. 1층은 깔끔하게 단장된 레스토랑 '하우스41(House41)'이 있다.

박물관 관람은 무료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월요일과 설날은 휴무다. 홍콩=김소희 기자 ksh@

귀하신 몸에서 대중음식으로... '냉면의 味學'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 미숙하게 풀어낸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올곧은 지적도 기대한다.

냉면이 뜨겁다. 2018년 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냉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접하면서 열기가 폭발했다. 그날, 서울의 냉면집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북한 '육류관' 냉면 때문에 평양냉면 붐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 이전부터 평양냉면은 음식, 맛집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고 있었다. '평양냉면의 숨겨진 맛'이라는 표현이 여러 미디어와 개인 블로그, 유튜브 등에 떠돌아다녔다. 평양의 육류관 냉면은 불타는 장작덕미에 기름을 얹은 격이었다.

냉면은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면스플레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면(麵)' + '익스플레인(explain)'이다. 면, 냉면, 평양냉면에 대해 아는 체하며, 맛집 순위를 매기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을 이른 표현이다. 이 글이 '면스플레인'인지 읽는 분들이 판단하시길.

국수, 냉면은 귀한 음식 냉면도 '차가운 면' 국수다. 냉면의 주재료는 메밀이다. 메밀은 '메[山] + 밀[小麥]'이라고 여긴다. 모가 났다고 해서 모난 밀, 모밀,

척박한 땅에 심는 상용작물 '메밀' 절구질 후 고운 입자 추리기 반복 툭툭 끊어지는 면발... 제면 어려워 특별한 날 부잣집서나 먹던 음식

메밀이라는 설도 있다. 보리는 대맥, 밀은 소맥, 메밀은 교맥(蕎麥) 혹은 목맥(木麥)이다. 메밀은 상용작물(常用作物)이었다. 초여름 무렵 비가 부족해도 메밀을 대파했다. 메밀은 60-90일이면 수확할 수 있었다. 애당초 벼농사, 곡물 농사 짓기 힘든 땅에는 메밀을 심었다.

메밀이 좋아서 메밀로 국수를 만든 것도 아니다. '메밀국수+동치미'의 조합은 좋아서, 먹고 싶어서 선택한 조합이 아니다. 비교적 편하고 쉬워서 등 떠밀려서 선택한 조합이다.

국수는 귀한 음식이었다. 안동에는 지금도 '국수 제사'가 남아 있다. 강원도 출신들 중 결혼식 때 막국수를 먹었다는 이가 많다. 경조사에만 사용했던 귀한 음식, 국수. 국수의 대중화 역사는 길지 않다. 냉면과 국수, 막국수는 모두 국수다.

메밀 함량 묻지 마라

조선시대에는 메밀 함량이 어느 정도였을까? 추정컨대, 50%를 넘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제분기술이 낮아 디딜방아, 절구질, 물레방아를 이용해 제분했다. 절구질한 후, 고운 천 혹은 체 등으로 메밀가루를 내린다. 고운 가루는 아래로 떨어지고 깨진 겉질, 나머지 거친 입자는 그대로 남는다. 찌꺼기와 거친 입자를 다시 빵는다. 같은 방식으로 고운 가루를 내린다. 이 힘든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고운 메밀가루를 모은다.

메밀은 점도가 약하다. 점도가 약한 거친 입자, 기껏 국수를 만들어도 툭툭 끊어진다. 방법은 전분(澱粉)을 넣어 반죽하는 것이다. 전분은 녹말가루다. 전분을 넣으면 점도가 높아진다. 그나마 낫다.

막국수 노포에서는 대부분 '여름철에는 메밀 40%, 겨울에는 메밀 60%'를 고집한다. 나머지는 밀가루 혹은 전분이다. 전분이 많으면 국수는 반들반들 윤기가 난다. 냉면이나 막국수 모두 같다.



①경인면옥 평양냉면 ②경인면옥 평양비빔냉면 ③강원도 횡성군 삼군리메밀촌에서 유압식 제면기로 100% 메밀 국수를 내리는 모습. ④메밀 음식 상차림은 메밀막국수와 메밀전, 동치미 국물, 메밀묵으로 구성된다.



국수의 검은 점은 메밀겉질이다. 요즘은 메밀겉질이나 보리 태운 가루 혹은 색소로 검은 색깔을 낸다. 메밀겉질이 남아 있던 예전의 거친 냉면, 막국수처럼 보이려는 것이다.

메밀 함량이 몇 퍼센트이면 가장 좋은 냉면 혹은 막국수일까? 우문(愚問)이다. 시젯말로 '개취(개인의 취향)'이다. 어느 정도의 메밀 함량이 맛있는지를 묻는 것은 어리석다. 각자 개성에 맞춰서 고를 일이다. 메밀 함량이 낮고 높은 것은 '다르다'고 표현해야 한다. 이게 맛있고 저게 맛없다는 표현은 틀렸다.

19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냉면, 막국수를 내렸다. 조선시대 말기, 대한제국 시기를 화가로 살았던 기산(箕山) 김준근(생몰년 미상)은 '국수 누르는 모양'이라는 풍속화를 남겼다. 사내가 벽의 높은 곳에 발을 딛고 운모(운모)로 국수를 내리고 있다. 유압식 제면기가 나오기 전에는 "국수 뽑는 사람치고 앞니 성한 사람 없다"는 말이 있었다. 국수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계곡 장유의 '자장냉면' 언제부터 냉면, 막국수를 먹었을까? '막국수'라는

지어준 시'다. 이 시에 '납조냉면송저벽(拉條冷麵松菴碧)'이라는 문구가 또렷이 나온다. "가지런히 당겨 만든 냉면이며, 배추김치는 푸르다." 냉면과 배추김치 [菘菹, 송저]가 등장한다. 냉면 육수는 배추김치 국물이다. 이 시의 계절은 한겨울이다. 이불을 겹겹이 덮고 냉면과 노루고기 등으로 손님을 접대한다. 다산은 벼슬살이를 할 때 이 시를 남겼다. 냉면을 먹었던 곳은 황해도 서흥도호부로 대도시였다. '임성운' 집안도 쟁쟁하다. 큰 도시의 행정관리 책임자, 권력자와 같이 냉면을 먹었다.

18세기를 넘기면서 냉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먹는 이들도 다양하다. 서민들도 먹었다. 조선시대 말기의 문신 이우원(1814~1888년)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순조 즉위 초기 궁궐에서 냉면을 테이크아웃했다는 내용이 있다. 깊은 밤 달구경을 나왔던 순조가 냉면을 구해 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다. 이 내용에는 돼지고기도 등장한다. 냉면과 돼지고기를 같이 먹었다.

순조의 냉면은 궁궐 밖 가게에서 구해온 것이다. 19세기 초반, 한양 도성에는 늦은 밤 냉면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냉면은 히트 메뉴였다 영재(冷齋) 유득공(1748~1807년)의 '서경잡절(西京雜絶)'에 나오는 냉

가장 오래된 냉면 문헌은 17세기 초 이후 소비계층·먹는 방식 다양해져 해방 후 상업화 성공... 막국수 등장 메밀 함량 '황금비율' 저마다 제각각

면도 길거리 가게에서 파는 냉면이다. 영재는 음력 4월의 평양 거리 풍경을 그리면서 "냉면과 찢 돼지고기 값이 오르기 시작한다(冷麵煎豚價始騰)"고 표현했다. 음력 4월이면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고 냉면 값이 오른다. 냉면은 길거리 주막 등에서 잘 팔리는 히트 상품이였다.

조선시대 후기 문신 이인행(1758~1833년)도 냉면에 대해 기록했다. 이인행은 순조 2년(1802년) 평안도 위원으로 유배를 떠난다. 유배 과정을 기록한 '서천록(西遷錄)'에 동치미(?) 냉면이 등장한다.

"6월 초 이틀. 냉면을 즐기는 것이 이 지방(위원)의 풍습이다. 교맥으로(국수를) 만든 후, 김치 국물로(맛을) 조절한다. 눈, 얼음이 흘날리는 깊은 겨울에 쪽 마시면 시원하다"고 표현했다.

이미 냉면은 민간의 풍습이 되었다. 냉면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 음식이었다. '평양냉면'은 조선시대 말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대규모 상업화에 성공한다. 오늘날의 평양냉면이다.

계곡 장유(한양 혹은 경기도 안산/자주빛 육수), 다산 정약용(황해도서흥도호부/김치국물), 순조의 냉면(한양/돼지고기), 영재 유득공(평양/돼지고기), 이인행(평양도 위원/김치국물)의 냉면은 장소와 내용물이 모두 다르다. 메밀 함량을 짐작할 수도 없다. 1930년대 소설가 이무영이 남긴 기록에는 "경남 의령에서 한밤중에 냉면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장소는 머나먼 경남이다. 메밀 함량은 커녕 어떤 색깔의 냉면인지도 불확실하다. 의령에서 한밤중에 냉면을 배달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냉면, 막국수, 평양냉면 요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불확실하다. 메밀 함량도 달라지고 있다. 어떤 것이 '전통, 정통 냉면, 평양냉면'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함부로 '면스플레인' 할 일이 아니다.

황광해 객원기자 dasani87@naver.com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같이 가자 환전하고, 선물 받으러

신한은행에서 환전하여 최대90% 환율우대 받고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여행상품권의 행운도 받으세요



Summer Dream
★ 신한 환전&송금 FESTIVAL

신한은행에서 USD 100 이상 환전·송금하고
여행상품권의 행운을 잡아보세요!
(SOL앱 또는 인터넷 뱅킹에서 '썸머드림' 검색해 이벤트 참여)

1등(1명) 100만원 여행상품권 1,000,000	2등(4명) 50만원 여행상품권 500,000	3등(5명) 30만원 여행상품권 300,000	4등(2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	------------------------------------	------------------------------------	---------------------------

QR 코드: [QR Code]

행사기간 : 6월 3일 ~ 8월 30일
당첨자 발표 : 9월 27일 (신한은행 홈페이지 게시)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9-2-2014호(2019.07.18~2019.10.31) ※경품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진행되며 경품 수령 거부 혹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연락처 오류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경품이 불가능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경품발송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실물 경품 당첨 시 우선으로 통보되고 그 외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경품의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고 경품은 사정에 따라 다른 경품으로 바뀔 수 있으며, 경품 소진 및 당행의 사정에 따라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당행에서 부담하며, 3만원 초과 경품 제공 건에 대하여는 2016.7.30부터 시행중인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고객센터,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벤처로 시작 3년 만에 월 매출 30억 기업으로

토종 네일 브랜드 자존심...정규화 젤라토크 대표

2016년 티몬 실장 재직 때 네일디자인 정보 제공 앱 론칭 다운로드 100만회 돌파...인기 네일 스티커 제작도 나서

젤라토크는 사내 벤처로 시작해 3년여 만에 월 30억 원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젤라토크'이라는 상호로 주력 사업을 유추하기란 쉽지 않지만, 2039 여성들에게는 셀프 네일 브랜드 '젤라토크팩토리'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정규화(사진) 젤라토크 대표는 2016년 티몬 사내벤처팀 실장으로 재직하던 때 네일디자인 정보를 제공하는 앱 '젤라토크'를 론칭했다. 네일아트에 관심이 높은 2039 여성들이 미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네일 디자인을 검색한 후 네일아트숍을 찾는 점에 주목한 앱이다.

"앱 젤라토크는 네일숍 이용 고객 95%가 시술 전 네일디자인을 검색하는 빅데이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게 됐습니다. 젤라토크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젤 잘나'가

는 네일 다 이모'의 줄임말로 젊은 여성들에게 직관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이름이지요."

2016년만 해도 다양한 네일 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이나 도메인이 전무했다. 그 덕분에 젤라토크는 초창기 네일 아티스트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후 셀프네일에 관심이 많은 일반 소비자까지 앱 다운로드 횟수가 증가하며 누적 다운로드 100만 회를 돌파했다.

일반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꾀했다. "가장 인기 있고 예쁜 네일을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고 앱 젤라토크를 통해 인기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인기 네일을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면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IT 서비스 기반에서 제조업에 진출한다는 것부터 모험이었다. 정 대표는 국내외 네일 생산 공장을 수없이 조사하고 방문한 끝에 젤라토크팩토리의 대표 제품인 '하또하또핏'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하또하또핏은 '하고 또 하고 싶은 핏'이라는 의미다.

젤라토크팩토리의 네일·패디 스티커 라인

'하또하또핏'은 현재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을 빠르게 반영한 제품으로, 트렌디한 디자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약 300종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도 넓다. 최근에는 캐릭터에 관심이 높은 이들을 겨냥해 디즈니, 카카오프렌즈, 무민, 미피, 스누피, 세서미 등의 캐릭터가 담긴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정 대표는 하또하또핏에 안주하지 않고 후속 라인업도 강화했다. 프리미엄 라인 '하또하또핏 Pro(프로)'는 실제 젤네일 성분을 60% 균한 반경화 타입으로 손톱에 붙인 뒤 햇빛과 같은 자연광 혹은 큐어링 기계를 이용해 굳히면 실제 젤네일의 광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내벤처로 출발한 지 1년여 만인 2017년 분사 후 홀로서기에 나선 젤라토크는 온라인몰, 웰스앤뷰티(H&B)스토어에 이어 편의점까지 판매망을 확대하며 지난해 8월 누적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월 매출이 30억 원대까지 오르며 '토종 네일 브랜드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LPGA 에비앙 챔피언십 빛낸 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LG전자는 25일부터 4일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LPGA 메이저 골프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 후원사로 참가해,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를 소개한다.

대회 관계자와 갤러리들은 골프클럽에 있는 LG 시그니처 체험존에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냉장고, 세탁기, 가습공기청정기, 와인셀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골프장 내 VIP를 위한 공간에 와인셀러를 추가로 전시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8번 홀은 LG 시그니처 홀로 운영된다. LG전자는 8번 홀 주변에 설치된 배너에 LG 시그니처 제품과 브랜드를 노출해 현장이나 방송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는 골프팬들에게 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8번 홀에서는 출신원을 한 선수에게 LG 시그니처 제품을 선물한다. LG전자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선수를 위해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를 증정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생명 '어린이 국수전' 결선 우승자에 장학금 1000만원



한화생명 우승자(서있는 사람 중 왼쪽에서 세 번째) 대표이사 사장, 조호현(두 번째) 의원, 이창호(네 번째) 9단이 대국을 지켜보고 있다.

한화생명은 25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제19회 한화생명 세계어린이 국수전' 결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9개국 어린이가 272명이 한자리에 모여 결선 대국을 펼쳤다. 최고 실력자들이 경합한 국수부 우승자에게는 국수패와 함께 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참가선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한국 바둑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돌부처' 이창호 9단이 대회를 찾아 박지은 9단, 김혜민 8단, 오유진 6단과 함께 사인회를 가졌다. 다트게임, 미로게임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제공했다.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9년간 한화생명 세계어린이 국수전은 많은 바둑 꿈나무들이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해왔다"며 "어린이들이 소중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실비보험 가입해주고 주4일제, 직급 없는 호칭 사내문화 만들고...

중소벤처부,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인 10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이대훈 코아드 대표 등 10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인들은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모범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중기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성과 공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존경받는 기업인'을 선정해 왔다.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철학 △성과급 지급 △임금인상·복지 등 성과공유 사례 △기업 성장성 등을 주로 평

가한다. 이대훈(왼쪽 사진) 코아드 대표는 작년 기준 신입사원 연봉을 전년 대비 33% 인상해 주고 직계가족까지 보장되는 실비보험 가입과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퇴직연금, 노후연금, 자기개발비도 지원한다. 전화성(오른쪽) 씨엔티테크 대표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자율출퇴근제, 낮잠휴식시간, 직급 없이 영어 호칭 사용 등의 사내문화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구황희 태운 대표, 김선범 금



성화학 대표, 박창호 에스지에 대표,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이래철 에스큐엔 지니어링 대표, 유정훈 풍원화학 대표, 조준희 이노시물레이션 대표, 최태수 에스시오 대표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는 존경받는 기업을 포함한 성과공유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한다.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도 준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한국지엠, 부품 협력사 초청 경영설명회 열고 7개사 시상

한국지엠(GM)이 150여 개 국내 우수 부품 협력사를 초청해 성과를 축하하고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2019 협력사 초청 경영현황 설명회'를 열었다.

24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스티븐 키퍼 GM 글로벌 구매 부사장, 조니 살다나 GM 해외사업부문 구매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부품 협력업체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키퍼 부사장은 "한국 협력사들의 GM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5월 15일 GM의 '2018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32개사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설명회에서 혁신, 품



한국지엠이 24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 '2019 협력사 초청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스티븐 키퍼(가운데 왼쪽) GM 글로벌 구매 부사장과 문승(오른쪽) 한국지엠 협신회 회장이 트로피를 들어보고 있다.

질, 운영 효율성 및 비용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에스엘, 광진기계 등 7개사를 추가로 선정해 특별 수상을 했다. 특히, 에스엘 주식회사와 광진기계는 GM의

기대를 지속해서 뛰어넘으며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공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22만과 16만 'GM 올해의 협력사'로 선정된 바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사

◆한국관광공사 ◇전보 로스앤젤레스 지사장 정병욱

◆신용보증기금 ◇승진 ◇본부장 △충청 영업본부 류재현 △호남영업본부 이태용 △경영기획부 이상주 △신용보증부 한영찬 △인재경영부 삼현구(전보) ◇본부장 △대구 경북영업본부 김형석 △부산경남영업본부 이도영 △인천영업본부 윤태준 △자본시장 영업본부 김대복 ◇부서장 △감사실 장영순 △비서실 이주영 △성과관리부 전준형 △감사실 감사반장 오세권 ◇지점장 △강동 김

홍선 △강릉 오재수 △강서 김정태 △경기 광주 정용진 △경산 김태익 △광주첨단 한중수 △광화문 김병권 △구미 고병욱 △김포 조준우 △김해 우병욱 △김해북 우정수 △남동 이흥식 △당진 강영철 △대구 고기조 △대구서 김형천 △대전 김승관 △대전 스타트업 최승욱 △대전중앙 안승협 △동대문 김현영 △동해 강명수 △마산 이상일 △반월 이재휘 △방배 장기수 △보령 정현호 △사상 조성각 △서귀포 채종화 △서산 유동현 △서울서부스타트업 김현직 △속초 황찬득 △송파 이영석 △수원 정철화 △순천 전홍렬 △시흥 이종근 △아산 이종노 △안

동 김경락 △안산 최평욱 △안양 이태용 △양재 왕성철 △영등포 이대성 △영주 김현익 △오산 유병선 △울산 손봉일 △울산북정가회 △이천 남기정 △익산 송원진 △인천스타트업 신동성 △인천중앙 이희창 △제주 이인수 △진주 김동원 △창원 이상명 △천안 송주현 △청주 이재훈 △청주서 최수영 △충주 이태희 △질곡 김남수 △포천 김동철 △화성 한성수 △화성서 황의상 △대구지지원단 강병태 △대전제지지원단 이재왕 △마포제지지원단 임영환 △수원제지지원단 현승욱 △영등포제지지원단 배홍기 △인천제지지원단 이병복

부음

▲호영진(전 한국경제신문사 사장·전 동력자원부 대변인) 씨 별세, 이연경 씨 남편상, 호웅기(영림원소프트랩 전무)·정은·순기(개인사업) 씨 부친상, 정규문(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씨 장인상, 이수정(송실사이버대 컴퓨터학과 겸임교수) 씨 시부상 = 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02-2227-7590

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02-2258-5940

▲정필수 씨 별세, 이영화(주세화 대표이사)·영주(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승열(전 거제교육장)·승업(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준호(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선화·연화 씨 모친상, 정옥훈·이정숙(사천초등학교 교사)·옥은숙(경남 도의원)·고희경(홍익대학교 교수)·최경란(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씨 시모상, 김병철 씨 장모상 = 25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농협장례식장 301호, 발인 27일 오전 9시, 055-852-0004

이필상 칼럼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고속성장을 했으나 가마우지 경제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해 팔면 이익의 큰 몫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했다. 차체에 첨단과학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일본 의존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를 위배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의 승리를 이끈 후 연 회견에서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선거 결과에 고무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정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가 경제보복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일본 영공에서 한 행위라고 억지를 부리며 영토 도발까지 노골화하고 있다.

한일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다.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하면 한국 경제의 피해가 다시 일본 경제 피해를 낳는 연쇄반응이 나타난다. 자유무역 체제하에

서 경제보복은 범죄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자유무역의 혜택으로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나라다. 그런 나라가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자기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은 한일 양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대신 중국 경제에 어부지리를 제공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을 유발해 일본의 안보에도 타격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설득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사 파견, 한미 공조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는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고속성장을 했으나 가마우지 경제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물고기를 잡으면 목이 묶여 주인에게 빼앗기는 가마우지 신세였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해 팔면 이익의 큰 몫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했다. 우리 경제는 조선, 유화,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줄줄이 국제경쟁력을 잃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3D프린터, 빅데이터,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서둘러야 경제가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상황을 맞았다. 차체에 첨단과학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일본 의존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터로 변한 지 오래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후 생존력을 잃으면 희생물로 전락하는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일부 산업의 부품 공급만 제한해도 휘청거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새로운 산업발전을 이끌어갈 기업들이 추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한국 대기업의 신용도가 당분간 부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머지않아 한국 대표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경고다. 올 1분기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40%나 감소했다. 이 중 30개 기업은 유동자산에 비해 유동부채가 많다. 빚이 아니면 연명이 어렵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 불안을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노동제도의 경직화 등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집중해 실업률과 사회양극화를 가중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해 주요 기업들이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2.9%로 억제했거나 기존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는 단순한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신산업 발전과 투자 활성화 우선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분방해 경제구조 혁신과 자립을 서두르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

전 정 일 신구대 원예디자인과 교수
신구대 식물원 원장

오늘도 식물원의 이곳저곳을 거닐며 식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으로 접어들어 식물들도 지치고 힘이 빠져 보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유독 힘찬 모습으로 해를 향해 꽃을 피우고 있는 식물이 보입니다. 몇 년째 식물원에서 신경 써서 심어온 '해바라기'가 다양한 모습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정열적인 꽃에 이끌려 해바라기 꽃밭 사이를 여기저기 헤집고 다닙니다. 노란색부터 검붉은색까지, 사람 얼굴만 한 큰 꽃부터 주먹보다도 작은 꽃까지, 화려한 꽃물결 속을 걷습니다.

이렇게 꽃밭에 빠져 넋을 놓고 해바라기 사이를 걷다가 깜짝 놀랍니다. 해바라기 꽃에서 열심히 꿀을 따던 벌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에게 놀라 이리저리 날아갑니다. 어떤 벌들은 내 얼굴을 향해 날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

식물도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습니다. 해바라기가 왜 이렇게 많은 벌들을 불러 모으는지 독자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씨앗을 맺고 열매를 키우려면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까지 옮겨지는 '수분', 즉 꽃가루받이를 해야 합니다. 이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꽃가루받이를 위해 도움을 받는 대상은 무척 다양합니다. 벌과 같은 곤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사과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은 이른 봄, 사과가 잘 달리도록 하기 위해 일일이 꽃가루를 묻혀주는 일을 합니다. 사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농부들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식물들은 도움을 받은 동물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무언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벌에게는 달콤한 꿀과 꽃가루를, 사람에게는 맛있는 사과를 선물도 줍니다.

식물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꽃가루받이를 할 때만이 아닙니다. 일생을 거쳐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주는 대상은 동물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같은 미생물, 때로는 바람과 물과 같은 무생물들도 식물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물이 다른 이로부터 도움 받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식물이 총명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깡깡이풀'이라는 식물은 씨앗을 땅속에 잘 심기 위해서 개미의 도움을 받습니다. 씨앗 겹질에 '엘라이오솜'이라고 하는 개미가 좋아할 먹물거리를 붙여 놓습니다. 개미는 저장해 두었다 두고두고 먹을 생각으로 이것을 끌고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해 봄에는 개미굴 속에 저장되었던 씨앗이 싹트고 개미의 분비물을 양분으로 삼아 잘 자라게 됩니다. 얼핏 보면 개미가 큰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깡깡이풀이 자라면서 개미굴을 파괴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개미 입장에서 추운 겨울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식량을 깡깡이풀에게 얻었으니까요. 도움을 주고 받을 때 누가 더 많이 받았고 누가 더 적게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도움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사람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영자들이 꽤 많습니다. 직원은 돈만 주면 언제든 지 새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큰 오산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일이 모여 회사나 조직의 성과로 나타납니다. 이미 회사의 목표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상급자들은 하급자들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하급자들이 없으면 자기 혼자서는 성과를 낼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런 모습은 상급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급자들은 위에 상급자만 없다면 자기 세상이 될 줄입니다. 그 상급자가 막아주던 외풍을 혼자 다 맞아 상처 입을 것은 생각지 못합니다. 주변 동료는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 어떤 일도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서도 도와주어야 세상살이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지 버나드 쇼 명언
"당신은 존재하는 것들을 보고 '왜?'라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었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라고 묻는다."
영국 극작가 겸 비평가. 온건좌파 단체인 '페이비언협회'를 설립했다. 최대 걸작인 '인간과 초인'을 써서 세계적인 극작가가 되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56-1950.

☆ 고사성어 / 투메이기(投袂而起)
소매를 떨치고 일어선다는 뜻. 출전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대신 신주(申舟)를 제(齊)나라에 사신으로 보내며 송(宋)나라에 길을 빌리지 않았다. 송나라 집정대부(執政大夫) 화원(華元)이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겨, 그가 송나라에 입국하자 체포해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왕이 크게 노해 '옷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投袂而起]' 군대에 송나라 정벌을 명했다. 송나라가 결사적으로 싸우며 굴복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철군했다.

☆ 시사상식 / 비포서비스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 주려는 서비스(beforeservice)를 뜻한다.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와 비교되는 개념. 자동차 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찾아와 와이퍼와 같은 간단한 부속품을 교환해주거나 무상 차량점검을 해주는 것처럼 구매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서비스가 이뤄진다.

☆ 신조어 / 뇌피셜
뇌와 오피셜의 합성어. 주로 인터넷상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이르는 말.

☆ 유머 / 엄마가 고수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며 대처 방안을 물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조언했다.

"이 문제는 네 엄마에게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엄마가 잘 알고 있거든."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사수첩



서 병 곤 정치경제부/sbg1219@

소재·부품 국산화가 실현돼야 하는 이유

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래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 번도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다.

1990년 초반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적자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최대 적자액인 3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 적자액(1965-2018년)은 무려 6046억 달러다. 대일 무역 적자액 가운데 소재·부품 적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다.

그 이유는 반도체·전자 등 제조업에 주력하는 국내 기업들이 완제품 제조에 필요

한 소재·부품 등 중간재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들여오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해 매년 전체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대일 무역 적자가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무역 흑자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문제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이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되는 건 뼈아픈 일이다.

만약 일본에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흑자액이 늘어 외환 보유가 더 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는 소재·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산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대표전화 (02)799-2600
자본시장1부 (02)799-2647	자본시장2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팩스 (02)784-1003
산업부 (02)799-2644	중기IT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룸부 (02)799-2664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슈&인물

롯데월드 개원 30주년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

“서울스카이, 랜드마크로 공공적 가치 커”

신석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꿈으로 움튼 국내 최초·최대 실내 테마파크 롯데월드 개원 30주년을 맞이했다. ‘모험과 신비’의 콘텐츠로 무장해 ‘백년대계 롯데월드’의 최전선 선봉에 박동기(61) 롯데월드 대표가 서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대한민국 브랜드 순위 6위 = 롯데월드 30돌을 기념해 23일 서울 잠실 서울스카이에서 만난 박 대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삼성 갤럭시에 이어 2018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6위에 올랐다”며 “롯데월드 전 직원들은 롯데 브랜드 이미지를 선도하는 리딩 컴퍼니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월드는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데 이어 최근 스카이다크에서 재기 넘치는 몸동작을 선보인 이스라엘 대통령 등 국민들의 ‘최애’ 방문 명소에 꼽히는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매직아일랜드 △해양생물 교육의 산실 아쿠아리움 등 전국에 총 5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특히 어드벤처는 1993년 10월 ‘세계 최대 실내 테마파크(총면적 4만 9909평)’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으며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2017년 국내 레저시장 규모는 2013년에 비해 약 11.5% 증가했다. 테마파크 산업은 기본적으로 가변성이 크지만 롯데월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외항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수 중심의 충성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롯데월드 전 사업장의 연간 매출 성장률 10%를 목표로 한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이익도 이익이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공공성이라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는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대한 박 대표의 애정은 남다르다. 서울스카이는 한국에서 가장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는 “말랑말랑한 조직 문화에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진다”며 “직원들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대표이사 임무”라고 말했다. 아래 사진은 박 대표가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jiak@

국내 테마파크산업 꾸준히 성장 내수중심 충성고객 안정적 확보
쇼핑사업 매출 성장 10% 목표

서울스카이, 세계 네 번째 높이 2년도 안돼 방문객 300만 돌파 3년뒤 확 바뀐 콘텐츠 선보일 것

부산 2021년, 하노이 2022년 완공 목표로 사업장 확대 순조 중국 선양도 최근 착공 허가

협회장이기도 한 그는 포화된 서울에서 벗어나 지역 거점의 독창적인 관광 역량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대표는 “부산 복합관광문화벨트의 핵심이 부산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될 것”이라며 “롯데월드가 입증해온 공연 역량 역시 부산 롯데월드에서도 강점으로 멋지게 발휘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고 2016년 말부터 중단됐던 중국 선양 프로젝트도 최근 현지 정부의 착공 허가를 받았다. 박 대표는 “오랜 기간 공사를 쉬었던 만큼 다시 재개를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룹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이 즐거워야 손님에게도 즐거움 전달” = 1984년 호남 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으로 입사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신문화팀장, 롯데하이마트 전라지역본부장 등을 두루 거친 그에게 따라붙는 ‘샬러맨의 신화’라는 별명에 그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아쿠아리움에서 잠수 자격증을 취득해 석촌호수에 뛰어들어 정화작업을 펼치는가 하면, 공연단원에게 직접 트럼펫을 배워 어린이 환우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그의 발로 뛰는 현장 행보는 직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최근 롯데월드는 2배 길어진 자이로드롭 페이크 광고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고, 1030 젊은 세대부터 유아 동반 가족 고객까지 몰려든 ‘그릴싸진관’이 SNS 인증샷 성지로 떠오르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불협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도 많다. 말랑말랑한 조직 문화에서 직원들의 실력과 아이디어가 쏟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신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롯데월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다. ‘일하는 직원이 즐거워야 손님에게도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서 “직원들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대표이사 임무”라는 지론을 밝혔다.

롯데월드는 계속된 투자를 통해 국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가격 덤핑 없이 제값 주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질적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는 서울스카이에 서울 전경과 영상 미디어장치를 융합한 영상 미디어관 ‘스카이스쇼’를, 어드벤처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젝션 맵핑쇼 ‘미라클 나이트’를 새롭게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급 ‘최애’ 방문 명소…기획공연 보고 눈물 흘리기도 = 문화의 장으로서 기능도 자랑할 만하다. 그는 “각국 주한 대사관과 연계해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기획 공연을 하고 있다. 지난해 라트비아 100주년 기념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는데, 라트비아 대사가 관람한 후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며 “헬러윈 축제 등 롯데월드 공연단의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에 자부심을 느낀다. 서울스카이 역시 품격 있는 ‘컬처 스페이스’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롯데월드의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은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부산 롯데월드 어드벤처(2021년 완공 예정), 베트남 하노이 아쿠아리움(2022년) 등이 대표적이다. 토목공사에 돌입한 베트남 아쿠아리움은 첨단 역량의 집합체로 설계됐다. 박 대표는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계실(LSS) 등 백오피스를 통유리를 통해 방문객에게 공개해 콘텐츠로 삼았다. 5년간 쌓은 이런 자신감과 노하우를 하노이에 고스란히 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12대 한국종합유원시설

시설

재정 풀어 떠받친 2분기 성장, 하반기 어둡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1분기 -0.4%의 역성장에서 반등한 것으로, 2017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1년 전에 비해 1.9% 성장했는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1.5%) 이래 최저다. 한국은행은 25일 이 같은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저해효과 크고, 경기 회복의 긍정적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분기 성장은 정부 재정이 이끌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3% 포인트(p)인 반면, 민간기여도는 -0.2%p로 오히려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수출과 민간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 투입으로 정부소비가 전기 대비 2.5%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규모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7%(전년 동기 대비 2.0%)에 그쳤다. 수출은 2.3%, 설비투자 2.4%, 건설투자가 1.4% 확대됐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은 겨우 1.5%였고, 설비 및 건설투자는 각각 -7.8%, -3.5%의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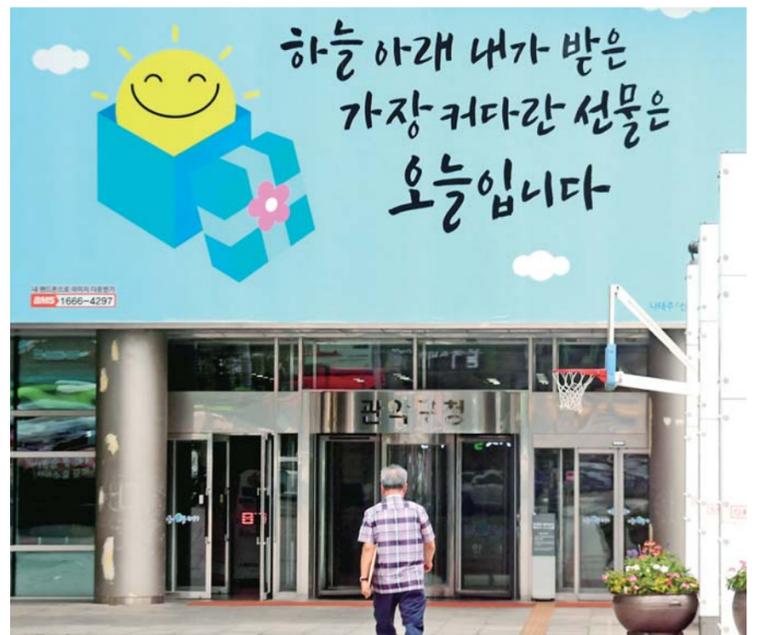
민간의 경제활력이 바닥에 가라앉아 성장을 제약하고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은 하반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한은이 최근 전망한 올해 성장률(2.2%)을 달성하려면, 3분기와 4

분기에 전기 대비 0.8~0.9%씩 성장해야 한다. 현재 경제 흐름으로는 비관적이다. 반도체 경기가 계속 나쁘고, 일본과의 무역갈등은 악화일로 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해 우리 산업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25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중점된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업투자와 수출 및 소비 활성화,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늘리는 등 소비촉진 방안도 담겼다.

그럼에도 경제활력을 되살리기에 역부족인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세액공제와 감면 등이 한시적이고, 세금 경감 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법인세 인하 등 보다 과감한 감세, 규제의 획기적인 철폐, 고비용저생산성의 늪에 빠진 노동시장 개혁 등이 관건이다.

한 킷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뮤지컬 그리스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날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어제와 내일이다.” 서울 관악구청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이치를 알고 사는 것은 아닐까. 고이관 기자 photoeran@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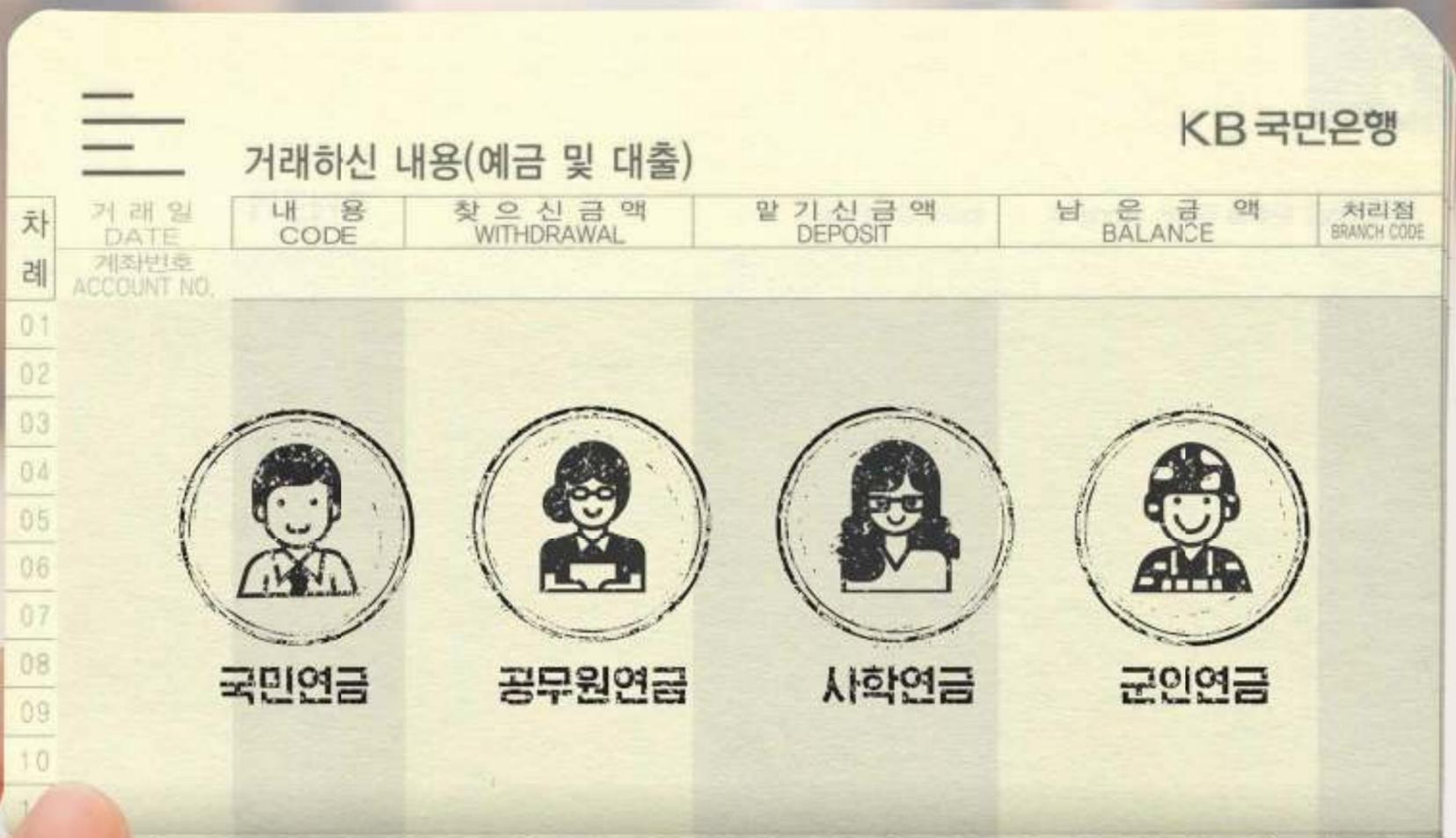


국민연금도 KB국민은행으로

편리한 KB
편의점 24시간 ATM 출금

가까운 KB
전국지점수 1위

손쉬운 KB
'손으로 출금'(손바닥 정맥 인증)



**4대연금
신규수령
이벤트**
2019. 7. 8 ~ 12. 31

·경품내용:

<p>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p> <p>여유로운 나의 힐링을 위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2명, 500만원 상당)</p>	<p>2등 국민관광 상품권 ₩1,000,000</p> <p>실례는 나를 위해 국민관광 상품권 100만원권(20명)</p>	<p>3등 신세계 상품권 ₩300,000</p> <p>트렌디한 나의 패션 센스를 위해 신세계 상품권 30만원권(50명)</p>	<p>4등 정관장 상품권 ₩50,000</p> <p>소중한 나의 면역력을 위해 정관장 상품권 5만원권(500명)</p>
---	--	---	---

·이벤트내용: 이벤트 기간 중 당행 입출금계좌로 4대연금을 2회 이상 신규 수령^{*)} 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주) 2019. 1. 1 ~ 6. 28 4대연금을 당행 계좌로 수령한 경우 제외

·당첨자발표: 2020. 2. 7(금) 예정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스타뱅킹 / 리브(Liiv)] ▶ 이벤트 ▶ 행운의 당첨자

※ 이벤트 응모기회는 1인당 1회에 한하며 자동응모 됩니다. ※ 이벤트 추첨 대상은 2020.1.31(금) 기준 4대연금 정상 이체 계좌만 해당됩니다. ※ 이벤트 추첨은 난수 입력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난수추첨일 2020.2.4(화) 예정).
※ 경품 지급금액 5만원 초과 시 제세공과금은 KB국민은행이 부담합니다. ※ 경품 발송을 위해 고객정보상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우선으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KB스타뱅킹, 리브(Lii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품 수령 거부 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연락처 오류 등으로 경품 반송 시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사정상 동일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1166호(2019.7.18) 광고물 유효기한 2019.12.31까지